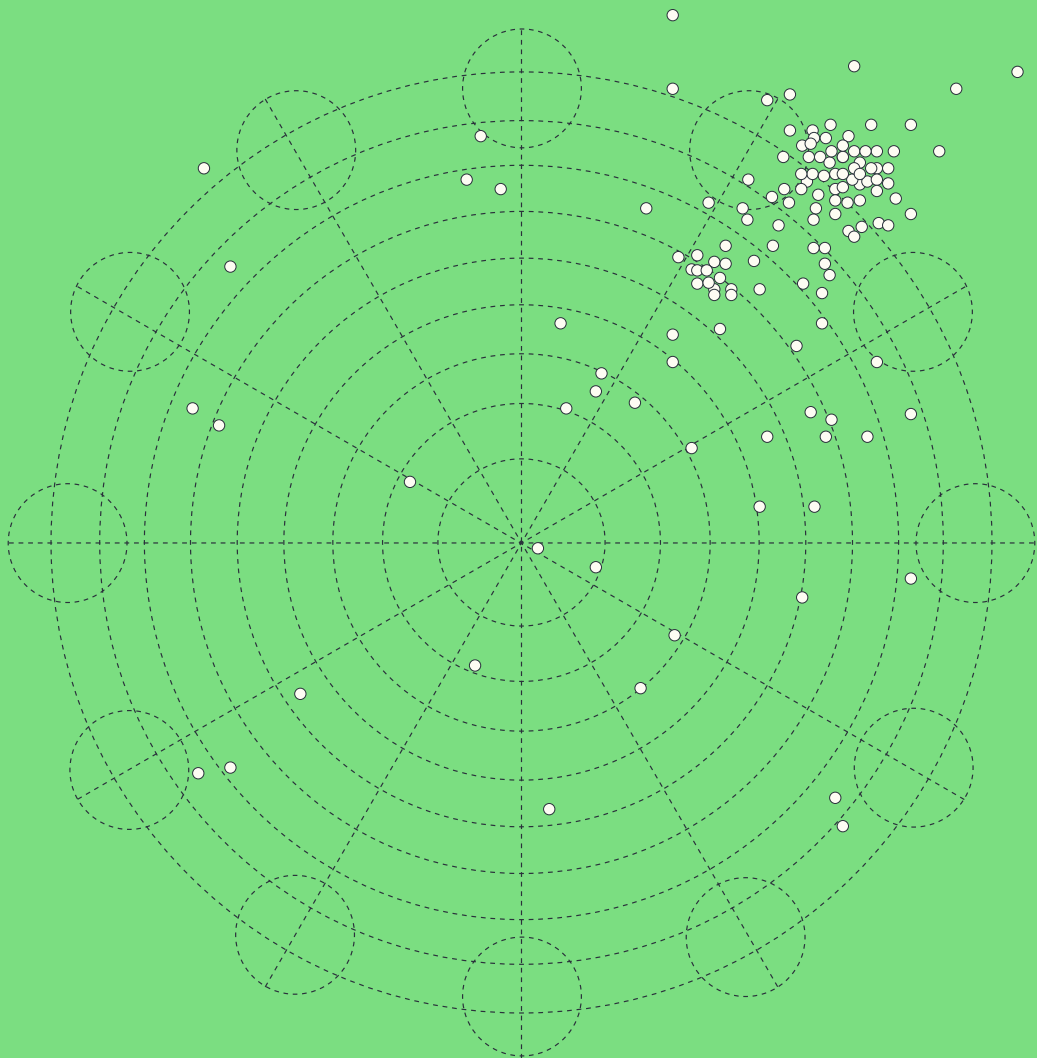


문화예술부문 기후위기 대응 사례

공연예술 창제작을 중심으로

문화예술부문의
지속가능
가이드북 II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내 문화예술의 주요 흐름

김미소

DMZ 피스트레인 뮤직페스티벌 총감독

2019년 9월 23일,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Greta Thunberg의 연설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툰베리는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참여하기 위해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비행기를 타지 않고 태양광 요트를 타고 2주간 총 4,800km의 바다를 횡단했다. 각국의 많은 정상들이 참여한 연설에서 툰베리는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고, 대규모 멸종의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 당신은 돈과 영원한 경제성장이라는 꾸며낸 이야기만 늘어놓는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호소했다.

2019년 11월, 세계 153개국 과학자 만여 명이 국제 과학학술지 <바이오 사이언스>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 성명을 냈다.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논의가 지난 40년 동안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기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인류는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해 9월 2일, 호주 남동부 지방에서 발생한 산불이 2020년 2월 13일에 진화되었다. 대규모 산불로 인해 한반도 면적의 85%에 달하는 숲 1,860만 헥타르가 소실되었고, 야생동물 5억 마리가 불에 타 죽었다.

기후위기와 관련한 강력한 외침과 대형 사건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2020년 1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출현했다. 전 세계를 강타한 감염 바이러스로 국가봉쇄령이 발령되고, 감염의 최소화를 위해 사람들의 만남과 이동이 제한됐다. 사람들이 대규모로 모이는 공연장, 영화관, 체육관 등의 시설이 폐쇄되었고, 야외 행사들은 불허되었다. 공연장이 문을 닫고, 축제들이 연이어 취소되며 공연개최 자체가 불가능한 시간이 길게 지속되었고, 2·4인 이상 모임의 제한이 있던 시기에는 만나서 연습을 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상 초유의 팬데믹 사태가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고, 공연예술 분야는 큰 위기와 도전에 맞닥뜨렸다. 오프라인 세계에서 공연이 중단된 시기, 많은 예술가와 예술계 종사자들은 공연활동의 지속을 위해 공연 콘텐츠의 디지털 전환을 긴급하게 시도했다. 소규모 온·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동시대 예술을 진단하고 미래예술이 어때야 하는지에 관한 다양한 논의·연구·기록들이 이어졌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과 불확실한 미래가 야기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체감한 예술계는 ‘전환’의 예술을 이야기했고, 그 중심에서 ‘기후변화와 예술’이 언급되었다. 지속가능한 삶과 예술 활동을 위해 기후대응은 누구에게나 필연적으로 연결된 문제이며, “인간중심의 자연지배적 관점이 아닌 새로운 관점을 담은 예술은 무엇인가? 예술은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

정책적 대응

정부는 2020년 UN에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제출하고(2020.12.) 이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2021.9.24., 제정)을 제정하였다. 한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국가비전으로 하고,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중간목표를 명시하였다. 탄소중립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부분에 탄소중립법의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기관과 사업자 및 국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나, 문화예술 부문(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과 메시지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2021년 4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혁신 소위원회에서는 ‘기후위기와 예술정책’ 워킹그룹을 발족했다. 정책혁신소위원회 위원, 아르코 사무처 직원, 환경분야 전문가 등 총 6인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은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 정책과 관련된 국내외 동향조사와 사례분석,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기후위기 시대 문화예술의 의미와 역할을 설정하는 연속 워크숍 8회,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예술가 양성, 고민과 어려움, 대안과제를 파악하기 위한 예술현장과 함께하는 공론화(포럼·토론회) 2회를 운영했다. 2021년 4월 아르코 정책혁신소위원회 정책 제안 포럼에서 ‘기후위기 시대의 문화예술 정책 개선 방안’을 통해 ①기후위기 관점에서 <문화정책 중장기 비전·로드맵>

수립과 <문화를 통한 기후위기 적응> 추진 ②예술인 사회적 안전망 확대 ③예술 창작 활동과 단체 운영의 녹색화 지원 ④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후위기 문화적 적응과 이니셔티브 형성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으며, 2022년 12월 정책혁신소위원회 ‘기후위기-예술정책’ 워킹그룹 결과보고서를 발간했다.

국·공립 극장의 대응

국립극단의 김광보 예술감독은 2021년 1월 진행된 취임 기자 간담회에서 ‘환경’ ‘기후’ ‘배리어프리’ 등 시대의 화두를 극장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고 발표했다. “공연 창작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탄소발자국 줄이기를 시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행동으로 지구 위기에 대응하는 공공 극장 모델을 개발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립극단은 동시대적 화두로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2022년 ‘기후위기와 예술’로 창작극 주제를 설정하고 이 주제에 맞춰 작품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지구 종말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여전히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받아들여지는 기후위기 문제를 조명한 전유환 작·연출의 <기후비상사태:리허설>이 제작되었고, 작품은 2022년 5월 11일부터 6월 5일까지 명동예술극장에서 공연되었다. 해당 작품은 주제뿐만 아니라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발자국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연계 탄소발자국 절감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생태주의 관점에서 창작 과정에 적절한 참고자료와 조언을 제공하는 에코드라마트루그가 작업에 함께하였으며, 공연 이후 해당 작품의 친환경 제작 과정에 대한 기록, 실천 내용과 결과, 탄소발자국 계산 리포트, 친환경 제작 업체 리스트가 수록된 ‘2022

1 정책혁신소위원회 ‘기후위기-예술정책’ 워킹그룹 결과보고서
<https://www.arko.or.kr/synap/skin/doc.html?fn=MTgwNTU3OFYyMDIyMTIyOTUwMjcwMjY3OTA.pdf&rs=/synap/result/78/>

국립극단 제작공연 〈기후비상사태:리허설〉 기후노트²⁾를 발간해 현장과 공유했다. 또한 임성현, 한민규 연출과 함께 ‘기후위기와 예술’을 주제로 동시대적인 사유를 어디까지 넓힐 수 있는지를 실험하는 창작극을 개발 중에 있다. 기후감수성, 기후위기와 자본주의의 관계성 등을 리서치, 워크숍, 창작 과정 공유와 시연을 통해 작품으로 개발하였고 2023년 8~10월 사이 <스고파라갈>, <당신에게 닿는 길>이 발표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은 도시와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이슈를 문화·예술 관점에서 접근해 보는 실험적이고 실천적인 프로젝트인 <ACC 소셜디자인 랩>을 2020년부터 진행해오며, ‘환경’에 초점을 맞춘 창제작 전문 예술기관의 역할을 모색한다. 2020년 <소셜디자인 랩> 프로젝트를 통해 다분야 창작자와 버려진 자원을 업사이클링하여 새로운 작품 및 상품으로 재탄생시키고, <ACC 그린뉴딜가이드북>을 발간하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창제작 실천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2021년에는 접근방식이자 결과물을 ‘창작 백신 ECO-CREATION VACCINE’이라 정의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과정을 ‘이해-실험-개발-소비-정착’ 등 다섯 개의 장으로 펼쳐나갔다. 또한 ACC에서 제작되는 공연·전시에 적용가능한 ‘지속가능한 ACC 콘텐츠 창제작 가이드라인³⁾’을 발간하였다.

2 2022 국립극단 제작공연 〈기후비상사태:리허설〉 기후노트
<http://archive.ntck.or.kr/front/view/document/D004053>

3 지속가능한 ACC 콘텐츠 창제작 가이드라인
<https://www.acc.go.kr/main/board/board.do?PID=0704&boardID=PUBLICATION&action=Read&idx=7&searchType=all&searchText=&pageIndex=1>

민간 예술단체의 대응

현장의 예술가들은 ‘기후위기의 시대, 예술가의 정체성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질문하며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공통적으로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기후위기와 관련한 예술 작품과 활동으로 이슈가 생기고 사람들의 관심이 모여면서 그것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그 책임을 함께 나누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예술적으로 상상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기후위기가 작업의 소재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삶과 작업에서 실존적으로 연결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예술가들의 사고와 태도를 바탕으로 포스트 휴먼, 기후위기와 자본주의, 인간과 비인간, 비거니즘, 미래의 재난 등을 주제로 하는 공연이 등장했다. 작품의 창제작 과정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고민하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실천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작품의 기후위기 대응 사례는 사례집에 수록되어 있다. 또한 예술가, 기획자, 스태프 등 예술현장 구성원이 주체적으로 기후행동과 관련한 다양한 스터디, 토론, 포럼, 레지던시 등을 개최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지속적 관심과 실천을 확산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예술터발 예술가 레지던시-기후변화> 활동이 인상적이다. <예술터발 예술가 레지던시>는 화천의 문화공간 예술터발과 공연예술 프로듀서 콜렉티브 단체인 프로듀서그룹 도트가 기획하는 프로젝트로 2020년 시작된 예술가들의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다. 연극, 다원예술, 시각예술, 영화, 영상, 책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와 기획자, 리서처들이 함께 기후변화에 대해 탐구하며 막연한 거대 담론을 우리의 삶 속에 구체화하며, 예술적 실천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2020년 주제는 ‘화천에서 환경을 말하다’, 2021년 주제는 ‘관점의 전환, 세상을 보는

시선들’이었으며, 2022년에는 ‘기후변화와 에너지’였다. 2022년 레지던시는 거주형, 집중형으로 6명의 아티스트가 함께하였으며 공통 워크숍, 온라인 레지던시, 주제집중 레지던시(강연·토론, 현장탐방, 다큐관람) 레지던시, 레지던시 결과를 공유하는 오픈 텃밭으로 이루어졌다. <예술텃밭 예술가 레지던시-기후변화>⁴는 웹사이트를 통해 레지던시 전 과정에서 논의되고 연구된 지식·정보를 공유한다. 레지던시에서 연구된 일부 작품은 추후 발전하여 공연으로 발표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기획자와 예술가가 중심이 되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지속가능한 창작 환경을 연구하는 오늘부터 []의 행보도 남다르다. 이들은 영국의 다양한 공연예술인, 기관, 극장 등이 협업하여 만든, 지속가능한 공연 제작을 위한 정보와 제안을 담은 책인 씨어터 그린북The Theatre Green Book을 스티디하고 국내 창작 환경에서의 실천 매뉴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를 국문 번역하였다. 씨어터그린북 웹사이트⁵에 오늘부터 []가 작업한 한국어 번역본이 업로드 되어 있다.

공연예술축제의 대응

코로나 기간 야외에서 대규모 관객이 운집하는 축제는 대부분 중단되었다. 정부나 지자체가 축제 승인의 주체가 되면서 축제의 취소와 축소가 반복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 축제는 일회적이고 일탈적인, 소비지향적인 성향을 반성하고, 조금 더 친환경적이고 사회적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장으로서의 축제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축제의 현장 운영 부분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실천적 방법이 시도되었고, 참여 아티스트와 관객에게 친환경 캠페인이 전개되었다. 또한 공연작품 큐레이션 부분에서도 ‘기후위기’를 다루는 작품들이 발굴되고 소개되었다.

춘천마임축제는 2021년 ‘지구의 봄’을 주제로 소규모 분산화 형식의 <춘천마임백션>을 선보였다. 친환경축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한 2022년에는 이동식 발전차/발전기 대신 친환경 축전시스템 개발, 반영구적 이동식 배전판과 모듈형 전기라인 개발, 쓰레기 없는 축제를 위한 다회용기 사용, 인쇄물 최소화과 재활용 MD 제작 등을 실천했다.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은 2020년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고민하다가 과거 프린지에서 진행한 에코프린지 프로젝트를 부활시켰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인류세에 대처하는 예술가이드>를 제작했다. 가이드에는 축제에서 반드시 필요한 종이, 현수막·배너, 분리수거, 식음료(용기)가 더 적게 사용될 수 있는 방법, 친환경 소재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축제 내 기후위기 대응을 실천하는 자원활동가 ‘에코프린지팀’을 운영하고, 참여 아티스트와 관객들에게 관련 집담회, 워크숍을 진행했다. 2022년 에코프린지 2년차에는 오늘부터 [] 동료들과 씨어터 그린북 워크숍을 개최해 프린지 아티스트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했다.

2022 의정부음악극축제는 ‘거리로 나온 음악극, 지구를 노래하다’를 주제로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는 축제를 전면으로 내세웠다. 지속가능성 감독과 환경예술감독을 선임하고 의정부음악극축제 지속가능 실천 선언문, 지속가능성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실천했다. 시민들이

4 <예술텃밭 예술가 레지던시-기후변화> <http://artstutbatclimatechange.com/>

5 씨어터그린북 웹사이트 <https://theatregreenbook.com/>

공연에서 직접 기후위기를 다루고 대응하는 주체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였고, 축제 기간동안 ‘No 플라스틱’, ‘제로웨이스트’ 캠페인을 진행했다.

2022 서울국제공연예술제는 동시대적 관점과 시대적 가치를 담아내는 국제공연예술축제로의 전환을 시도하며, 기후위기의 시대에 예술과 환경에 대한 관계성을 찾아보고, 환경을 생각하는 예술 활동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다양한 예술형식과 예술의 역할을 질문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해당 축제에서는 원전에 투영된 인간의 욕망들, 그로 인한 아포칼립스적 풍경을 다루는 그린피그의 <나무는 신발가게를 찾지 않는다>, 기후변화로 미래를 위협받는 숲을 이동시키는 것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만들어진 관객 참여형 씨어터게임 공연인 <움직이는 숲 씨어터게임 1.0>, 수많은 지역에서 동시적으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불이 내포하는 파괴, 죽음, 고통, 변성의 사건들을 신체적, 정동적으로 감각하고자 하는 <불이 되는 숲>이 소개되었다. 축제 기간 동안 ‘우리는 생태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질문하는 <예술가로서 기후 문해력과 기후 감수성 키우기>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유효한 성과, 한층 더 필요한 확산

지난 3년, 기후위기를 논의하고 지속가능한 창작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실천이 본격화되었다. 현장 예술가들의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기후위기를 직면한 예술가의 역할과 태도가 재정의 되고 있으며, 공연예술계의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지식·정보가 쌓였다. 기후위기를 예술적으로 가시화하고 사유하게 하는 공연과 축제가 만들어진다.

창제작 전 과정, 각각의 포지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안내서, 체크리스트도 만들어지는 중이다. 지난 시간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지만 더 많은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직접적인 위협이 걷히면, 다시 무너지기 쉽다. 모든 것이 중단되었던 그때의 시간과 감각을 기억하며 기후변화를 실존적 삶과 작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절실하다. 좋은 작품은 또 다른 작품에 영감이 되고 동료의 올바른 사고와 태도는 작업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예술가, 기획자, 스태프가 자존감과 즐거움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다. 자연공동체의 삶을 이야기하는 작품이 늘어나고 자기 위치에서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공연예술 신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과제다.

문화예술부문 기후위기 대응 사례

공연예술 창제작 중심으로

I	국내 사례	
1	국립극단 <기후비상사태:리허설>	16
2	바람컴퍼니 <고기, 돼지> <A. SF_비거니즘의 세계>	26
3	위워크인투 <코끼리 택시>	36
4	이성직 <sf식당>	46
5	컬렉티브 텅굴 <꿈의 방주:Hunger Stone>	52
6	그린피그 <나무는 신발가게를 찾지 않는다>	60
7	춘천마임축제	68
8	서울프린지페스티벌	80
9	DMZ 피스트레인 뮤직페스티벌	92
10	의정부음악극축제	104
II	해외 사례	
1	그리너 리오프닝 툴킷 Greener Reopening Toolkit	118
2	지속가능한 창제작 툴킷 The Sustainable Production Toolkit	126
3	지속가능한 창제작 가이드 sustainable production guide	134
4	씨어터 그린 북 Theatre Green Book	144
III	친환경 정보시스템	
1	친환경건설자재 정보시스템	154
2	한국공기청정협회 검색시스템	157

I 국내 사례

- 1 국립극단 <기후비상사태:리허설>
- 2 바람김퍼니 <고기, 돼지> <A. SF_버거니즘의 세계>
- 3 위워크인투 <코끼리 택시>
- 4 이성직 <sf식당>
- 5 콜렉티브 텅굴 <꿈의 방주:Hunger Stone>
- 6 그린피그 <나무는 신발가게를 찾지 않는다>
- 7 춘천마임축제
- 8 서울프린지페스티벌
- 9 DMZ 피스트레인 뮤직페스티벌
- 10 의정부음악극축제

국립극단 <기후비상사태: 리허설>

국립극단 <기후비상사태:리허설> 페이지

<https://www.ntck.or.kr/ko/performance/info/257079>

#에너지

#폐기물

#물자와 재료

#이동

#에코드라마트루그

#기후 문해력

국립극단 <기후비상사태:리허설
Climate Emergency:A Rehearsal>
사례는 2022 국립극단 제작공연
<기후비상사태:리허설> 기후노트
내용을 재구성하여 정리하였다.
사진 ©나승열, 제공: 국립극단

작품 소개

지구 시계 마지막 60초를 위한 리허설. 갑자기 등장한 바이러스, 기원을 알 수 없는 폭력과 착취. 우리의 세계는 멈춰버렸다. 멈춰버린 오늘을 살아가는 11명의 '나'는 깨닫고, 부정하고, 후회하며 분노한다. 멈춰버린 지금이 마지막이 아닐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계의 마지막 60초를 되돌린다. 아직도 멈춰있는 극장에서 재생되는 다큐멘터리. 우리는 극장이, 우리의 일상이 재건되길 바란다. 국립극단의 <기후비상사태:리허설 Climate Emergency:A Rehearsal>은 2022년 5월 11일에서 6월 5일까지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에서 진행되었다.



기후비상사태에 대한 경종이 울리고 있다. 세계 각국의 기후과학자들이 지속해서 경고하고 있지만 기후위기는 먼 나라의 이야기, 먼 미래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진다. 마치 허구의 이야기처럼. 어떤 섬은 해수면 상승으로 섬이 잠기고 있다. 섬에 살고 있는 ‘작가’도 기후위기에 대한 연극을 쓰기 위해 애쓴다. 연설문을 찾아보고, 강연을 듣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실패한다. 일종의 고백이 시작되고, 분노하고, 우울해하고, 슬픔에 잠긴다.

1)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인식과 계기

① 실천 가능한 행동을 통해 지구를 보호하고 환경을 아끼는 연극 문화 만들기

- 2021년 국립극단의 김광보 예술감독은 향후 3년간 주요 운영 방향으로 1) 공공성 강화 2)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 보장 3) 적극적인 기후 행동을 발표했다.
- 실천 가능한 행동을 통해 지구를 보호하고 환경을 아끼는 연극 문화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기후 행동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제작 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공공극장 모델 개발,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최소화, 소비재 사용 감축, 공유가치 활성화 등이 있다.
- 이에 발맞춰 국립극단은 2021년 11월 기존에 출시한 기념품 중 불용품을 활용한 재활용 기념품을 출시하고, 공연 중에 사용했던 소품이나 의상 등을 민간단체와 나누는 활동을 하기도 했다.

2) 실천의 시작

② 기후위기와 관련한 주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기후비상사태:리허설> 기획

- 국립극단은 동시대적 화두로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2021년 ‘장애와 예술’, 2022년 ‘기후위기와 예술’, 2023년 ‘기술과 예술’이라는 창작극 주제를 설정하였다. 2022년 ‘기후위기와 예술’ 주제에 맞춰 전문작가 겸 연출가에게 작품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탄생한 작품이 <기후비상사태:리허설>이다.
- 해당 작품의 창제작은 기후위기와 관련한 내용적 접근 외에, 기획단계에서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발자국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연계 탄소발자국 절감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 생태주의, 탈인간 중심주의와 같은 주제를 어떻게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을지 창작자와 함께 고민하고 동시에 조금 더 친환경적인 공연을 제작할 수 있을지를 질문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에코드라마트루그’가 기획부터 함께했다.
- 탄소중립 실천을 통한 지속가능한 공연 제작을 위한 원칙 및 목표를 설정했다.
- 본격적인 연습이 시작되기 전, 친숙하지 않은 ‘기후위기’와 가까워지기 위한 능력, 기후문해력⁶을 향상시키기 위한 강연과 자체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연극 작품을 창작하고 발표하는 모든 과정에서 친환경적인 접근을 통해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실천 사항을 작성했다. 작품에 참여하는 배우 및 스태프의 의견을 취합해 발표하였으며, 국립극단 직원들을 포함한 모든 프로덕션 참여자가 동참하는 의미로 서명하였다.

⁶ 기후변화 현상을 파악하고 기후가 자신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출처: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과 과학진흥협회(AAAS)의 후원으로 발간된 기후문해력 안내서(Climate Literacy, 2009))

예산	전단 인쇄, 대본 제본을 포함한 각종 제작비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속가능발전경영센터SDMI ⁷ 와 협업하여 탄소발자국 ⁸ 산정의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배분했다.
인력	탄소절감을 지향하는 방향성을 공유하고 이에 동의하는 참여자로 프로덕션을 구성한다. 에코드라마투르그를 섭외, 배치하여 제작 과정에서의 탄소발자국 절감을 함께 고민한다. 「제작노트」를 작성하여 과정상의 시도와 실패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시간	제작 과정의 첫 단계로 내부 워크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을 안내하여 프로덕션 참여자의 기후감수성을 고취,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3) 창제작 과정의 실천 사항

공연 제작 과정에서 친환경 제작 실천을 위해 각 파트별로 잡았던 목표와 실제 실천 사항들이다.

① 무대

최대한 국립극단에서 보유한 자재와 대도구를 사용한다. 제작을 하더라도 도색을 하지 않는 등 재사용이 용이한 형식과 방법으로 제작하여 공연 후 폐기 물품을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② 조명

백열등 조명을 30% 줄이는 공연으로 선보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LED 조명을 활용하면 전기를 덜 사용할 수 있어,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보다 조명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③ 음악·음향

감도Sensitivity가 높은 스피커를 이용하여 적은 전력으로 높은 출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적은 출력으로도 관객에게

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사운드 믹스Sound Mix를 진행하였다. 또한 월성원자력발전소 등 극에 등장하는 현장의 소리를 채집하기 위해 이동하면서, 불필요한 동선을 최대한 줄이고 대중교통과 친환경 자동차를 통해 이동하였다.

④ 의상

국립극단 의상실에 가서 필요한 의상을 먼저 선택하고 개인의 의상을 최대한 활용하여 불필요한 의상의 제작이나 구입을 지양하였다. 또한 기존과 같이 국립극단의 식물성 세제를 활용해 세탁하였다.

⑤ 분장

공연 및 리허설 기간 동안 추가 인원 없이 분장 디자이너 1명이 모든 배우의 분장을 담당하였다. 또한 분장 재료 선택에 있어서 비건 재료로 대체할 수 있는 재료들을 다수 활용하였다.

⑥ 홍보·마케팅

영상 및 사진 촬영 과정에서는 사전 계획부터 탄소발자국을 감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동 동선을 줄이기 위해 모든 촬영을 극장에서 준비하였고, 인쇄물 제작 시에도 친환경 용지와 콩기름 잉크를 활용했다.(기존의 작업물들보다 조금 더 누르스름한 색으로 인쇄된다.) 추가적으로 별개의 인쇄전단을 제작하지 않았다.

⑦ 기타

프로덕션 내 인쇄 및 제본은 최소화했으며 부득이하게 인쇄할 시에는 친환경 폰트를 사용하고 용지와 잉크를 절약할 수 있도록 편집했다. 또한 연습실 내 종이컵을 비치하지 않고, 생필품(휴지 등)은 친환경 제품으로 최소로 배치하였다.

5) 실천의 효과

공연 전체 기간에 발생하는 탄소발자국을 산정하는 본 프로젝트는 2022년 3월부터 7월까지 프로덕션 참여자, 관객 등 공연과 관련한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총 5개월 동안 수행하였다.

<기후비상사태:리허설> 공연 제작 과정에서는 건물에서 사용하는 소비에너지에 대한 탄소배출량이 전체의 80%로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었으나, 실생활에서의 기타감축 노력으로 인해 그외 항목들은 비교적 적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연습실과 공연장 모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한 환경이며, 프로덕션 인원들이 기후위기에 관련한 강연을 듣거나 감수성을 고취하는 등의 인식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 탄소절감을 위한 참여율이 높은 편으로 추정된다.

6) 실천의 어려움

상충되는 이해 관계, 탄소발자국 줄이기 실천에서의 딜레마

- 불필요한 제작물을 만들지 않음으로써 비용을 절감한 부분도 있지만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는 데 따른 비용 발생도 감수해야 한다.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백열등 대신 LED 조명, 적은 전력으로도 높은 출력을 내는 스피커를 사용했는데, 이처럼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서 발생하는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하다못해 콩기름 인쇄도 일반 인쇄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 콩기름 인쇄가 가능한 업체를 찾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다.
- 상충되는 이해관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다. 이번 공연은 탄소 절감을 위해 경기도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대도구를 가져와 재활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1.5톤 트럭이 극장과 창고 사이를 여러번 오갔다. 이때 발생하는 탄소발자국이 새로운 세트를 만들고 폐기할 때 발생하는

건물 에너지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에서의 탄소배출은 건물에서 사용하는 소비전력, 도시가스, 수도사용량에 대해서 탄소배출량을 산정하여 총 90.59tCO₂-eq 배출 ⇒ 무더운 날씨로 인해 건물 내 냉방을 위한 전기와 도시가스의 사용량이 많아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된 것으로 추정
수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차(휘발유, 경유·동승자 고려), 지하철, 버스, 택시 이용은 설문 표본을 확보하여 산정 • 리허설 기간에는 관계자와 공연진의 이동만을 고려, 공연과정에서는 관계자, 공연진 및관객 모두의 이동을 고려하여 탄소배출량 산정하여 총 15.72tCO₂-eq 배출 ⇒ 공연장 지리적 특성(주차 불가)상 대중교통 이용이 높고, 해외 공연장과 달리 국내 방문객이 대부분이라 배출량이 높은 항공 이용이 반영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적게 산출
폐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극단에서 발생폐기물에 대한 총무계를 제공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일반폐기물과 재활용폐기물에 대해 탄소배출량을 산정하여 총 4.32tCO₂-eq 배출 ⇒ 공연 특성상 관련 인원 대부분이 사전에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 필요성을 인지하였고, 실제로 95%가 참여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수건 사용, 다이컵, 재활용 분리배출, 저탄소 식단으로 산정 • 관계자 및 공연진을 대상으로 표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전체 기간으로 환산하여 총 0.61tCO₂-eq 배출 •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실생활 노력을 적극적으로 수행

탄소발자국보다 적을까 하는 고민이 생겼다.

7) 개선을 위한 제언

프로덕션 참여 스태프의 제언

- 무대는 기본적으로 원자재(합판, 각재, 철재 등), 가공(목공, 철공), 도색(페인트 등)의 단위로 나누어 제작된다. 위 세가지의 단위에서 탄소절감을 위한 무대에서의 노력이 이루어진다.
- 페인트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가공이나

도색의 경우 공연의 특성을 고려해 의미있는 절감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무대 차원에서는 원자재를 절약하고 대도구를 재활용하는 방안으로 탄소절감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 물론 이러한 노력을 위해서는 극단에서뿐 아니라 각 프로덕션의 디자이너들도 서로 협조해야 이루어 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재활용도를 높이는 방식은 위의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다. 공연 전체적으로는 무대디자인 시 미니멀한 접근으로 장식성을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고 본다.
- 감도가 높은 스피커와 혼Horn 스피커를 이용하여 작은 전력에도 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안했다. 또한 장비 이용 시 발생하는 대기전력을 최소로 활용하도록 했다.
- 이번 의상 작업은 컨셉상 제작을 하기보다는 기존에 개인 및 스태프가 소유하거나 극단이 보유한 의상을 가지고 작업했다. 이처럼 재활용 의상 활용 시에 관련한 무대의상 매뉴얼, 또 제작으로 이루어질 시에도 친환경 염료, 원단 종류 등등의 필요한 자료가 충분히 구비되면 더 나은 환경이 되리라 생각한다.
- 분장사가 한 공연에서 적극적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제품을 사용하는 선택을 하는 것은 충분한 예산과 공연에 대한 애정(?)이 섞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충분한 예산이 주어져도 기존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제품을 사용하는 도전은 쉽지 않다.

8) 추가적 실천

기후위기와 예술을 주제로 한 신작 발표, 학습된 탄소 절감 방법 적용

- 임성현, 한민규 연출과 함께 ‘기후위기와 예술’을 주제로 동시대적인 사유를 어디까지 넓힐 수 있는지를 실험하는 창작극을 개발하고 있다. 기후 감수성, 기후위기와 자본주의의

관계성 등을 리서치, 워크숍, 창작 과정 공유와 시연을 통해 작품으로 개발하였고 2023년 8~10월 사이 <스고파라갈>, <당신에게 닿는 길>이 발표된다.

- <기후비상사태:리허설>을 통해 학습된 탄소 절감 방법을 다른 공연에도 적용해볼 계획이다. 포스터와 전단은 앞으로도 계속 친환경 용지에 인쇄하고, 티켓 봉투는 비닐 창을 없애거나 생분해 비닐로 만들 계획이다. 공연에 사용된 세트와 소품, 의상을 다른 공연 단체에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나눠주는 나눔장터도 진행할 계획이다.

9) 나누고 싶은 정보

- 2022 국립극단 제작공연 <기후비상사태:리허설> 기후노트
- 국립극단 <기후비상사태:리허설> 제작 과정의 기록
▶ 국립극단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http://archive.ntck.or.kr/front/view/document/D004053>

2 바람컴퍼니 <고기, 돼지> <A. SF_ 비거니즘의 세계>

- #에너지
- #물자와 재료
- #식품
- #비거니즘
- #크루얼티 프리

바람컴퍼니 <고기, 돼지>, <A. SF_ 비거니즘의 세계> 사례는 온라인 인터뷰를 통해 정리하였고, 인터뷰에는 한윤미 연출이 참여하였다.
사진 ©2018서울거리예술축제

<고기, 돼지 Meat, Pig>⁹

돼지가 고기가 되기까지의 가려진 과정을 드러내는 공연이며, 관객이 참여하는 이동형 오브제 극으로, 참여 관객은 작은 돼지(오브제)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함께 투어를 진행한다. 관객들은 돼지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돼지고기 부위에 대한 기억, 돼지고기 함유 식품 전시, 돼지의 지능과 특징, 야생 돼지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때로는 돼지가



⁹ 웹진 연극IN(2020). 인터뷰② 공연예술가 한윤미-[연극과 지구 : 모두를 위한 연극] 두번째기사. <웹진 연극IN 제181호> 2020. 6. 18.

되었다고 가정해 농장에서 도축장까지 가는 과정을 겪기도 한다. 농장의 커다란 돼지(오브제)들과 만나 시간을 보내며 돼지들이 어떻게 태어나고, 자라는지에 관해 이야기를 듣는 중 구제역이 발생하고 구제역 살처분 현장을 함께 목격하게 된다. 작은 돼지들을 포함하여 그 지역 반경 3km 이내 모든 농장의 돼지들이 살처분된다. 인간이 동물을 먹는 것은 과연 자연스러운가.

<A. SF_비거니즘의세계>

* NPC (Non-player character)

게임용어. 플레이어가 아닌 비플레이어 캐릭터를 말한다. 플레이어와 대화를 하고 일정한 패턴으로 움직이면서(일정 수준 이상의 상호작용) 플레이어에게 선택지를 주기도 한다.

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개발과 이권이 혐오 위에 부유하는 도심의 한복판. 이 장소는 이제 비건 세상으로 재편된다. 관객들은 감염병 A 이후, 새롭게 재편된 비거니즘이 당연한 세계에서 탐험을 시작한다. 이 비거니즘 세계의 시민으로, 새로운 질서와 여정을 시작하며 이야기의 진행은 관객의 선택에 달려있다. 10명의 파티원이 모여 하나의 탐험대를 이루며, NPC*들을 만나 미션을 수행한다. 인간이 비인간 존재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 이 공연으로 관객들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게 될 세계에 대한 상상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

바람컴퍼니는 거리에서 관객과의 접촉을 통하여 의미를 발생시키는 형식으로 작업해 왔다. 극장이 아닌 공간에서의 공연이 어떤 의미를 발생시키는지를 탐구하고 주거, 연애, 여성의 몸, 노동, 동물권, 소수자의 위치 등 일상의 경험에 질문하며, 삶과 사회 속에서 공연예술의 의미를 찾고 만들어내는 단체이다. 안전한 창작 환경과 지속가능한 창작 방식에 관심이 많으며 비거니즘을 지향한다. <고기, 돼지>, <두 개의 길>, <A. SF>까지 일회성으로 끝나는 작업이 아닌 하나의 주제를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공연하며 발전시켜나가는 레퍼토리 방식으로 작업하고 있다.

1)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거리 공연에서 체감한 기후위기, 구제역 살처분 목격

- 거리에서 공연하며 이상기후 징후들을 체감했다. 미세먼지 때문에 공연이 취소되고, 태풍, 동물감염병으로 축제가 취소되었다. 축제 취소의 반복은 공연할 수 있는 플랫폼 자체가 없어지는 일이었다.
- 구제역으로 살아있는 돼지를 포클레인으로 옮겨 구덩이에 매장하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 보게 되었다. 그 후로도 해마다 동물 전염병이나 인수공통전염병, 동물에게서 온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들이 발생했다. 2016년 조류독감 때에는 약 3,800만 마리의 조류가 매장되었다. 동물이 물건처럼 다뤄지며 매몰되는 장면이 너무나 이상했고, 이후 ‘살과 고기’에 대해 의문이 들었다.

2)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인식과 계기

구제역 이후 공장식 축산업에 대한 리서치, 비거니즘 지향

- 주로 작업이 일상 속 경험에서 출발하는데 ‘살과 고기’에 대한 의문은 숙제 같은 작업 주제였다. 이후 관련 책과 영상을 스테디했다. 목장 답사, 인터뷰 등을 진행하며 공장식 축산업에 대해 알게 됐고, 축산업이라는 거대 산업유기체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도 함께 알게 되었다.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동물의 고통과 착취가 촘촘히 연결되어 있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안하면 앞으로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공연을 만들었다.
- 비거니즘을 기반에 두고 사고하는 연습을 시작하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비건을 지향한다. 거리에 예술 책모임을 하고 있다, 이 모임은 거리에 예술과 생태를 주제로 시작했다. 기획자, 창작자, 스태프, 드라마투르그, 작가 등이 함께 기후와 관련된 책을 읽고 파생된 것들을 논의하고 스테디를 하기도 한다.

3) 실천의 시작

<고기, 돼지> 쇼케이스를 제작

- 2017년 <고기, 돼지>를 쇼케이스 형태로 선보이고, 이후 2018년, 2019년 공연을 했다. 공연 장소에 맞게 바꾸고 업데이트 하고 있다.
- 2022년 수원연극축제에서 친환경 공연예술 축제를 지향하며 축제의 장소가 되는 현 시민탑동농장의 장소성을 살린 공연을 해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이 있었다. 해당 장소는 서울대 농생대의 실험에 쓰이는 동물들을 기르는 실험목장(현 시민탑동농장)으로, 이 공간에서 이루어진 동물 실험에 관한 이야기, 기후위기 시대 과학기술의 지향점에 다룬 전시, 공연을 제작했다.

4) 창작작 과정의 실천 사항

① 재료의 출처 확인과 적극적인 재사용

- <레인보우 인 달고나>라는 작품에서 실제 달고나를 만든다. 크루얼티 프리Cruelty-free를 실천하기 위해 성분을 확인하고, 성분의 출처가 확인이 안 되는 재료들을 비건 재료들로 대체했다. 이처럼 작업에 쓰이는 재료들을 동물실험을 거치지 않거나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크루얼티 프리로 교체하고 있다.
- <A. SF>공연 준비과정에서는 오늘부터 []에서 공유해 준 그린북의 내용을 공유했다. 단원, 스태프들 각자가 시도할 수 있는 목표들을 세우고 실행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 공연에 사용되는 재료들의 출처를 확인하고, 재사용이 가능한지 고려했다. 새롭게 구매하는 건 마지막 선택이었고, 이미 소유하고 있거나 대여한 재료를 활용했다.
- 의상 디자이너도 이미 갖고 있는 의상, 이전에 제작했던 공연 재료들로 제작했다. 관객참여형 공연이다보니 장소를 안내하는

시도가 필요했는데, 사용하지 않는 에코백 뒷면에 공연의 루트를 프린팅하지 않고 직접 그려서 제작했다.

② 음향, 조명 사용의 전환, 더 나은 공간으로의 발전

- <고기, 돼지> 2017 쇼케이스에서는 조명을 쓰지 않고 태양광을 사용하고 싶었는데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황급하게 조명을 넣었다. 다음 해 공연할 때는 공연의 배경을 대낮 저잣거리로 변경했다. 전기 사용을 덜기 위해 조명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을 택하고, 낮에만 공연했다. 소비의 중심인 서울 도심 한복판 저잣거리. 대낮, 밝은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개념을 적용하며 작품의 컨셉을 연결하려 했다.
- 야외에서 공연하다 보면 음향, 조명의 사용을 위해 전기 발전차를 사용하게 된다. 발전차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기존의 음향장비 사용을 지양하고, 블루투스 스피커를 여러 개 사용해 보기도 했다. 사람이 스피커를 들고 이동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 공연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더 나은 공간으로 발전시키자는 의견이 있었다.(그린북을 참조했다) 당인리발전소 유희지가 공연의 메인 사이트였다. 그 곳을 중심으로 길게 공연의 루트를 짜고, 공연에서는 그 장소를 그대로 보이고, 공연 이후 버려진 담배꽂초, 쓰레기를 수거했다. 공연이 끝나고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함으로써 그 공간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의 실천이었다.

③ 탄소발자국 줄이기, 비거니즘의 실현

- 우리 공연이 관객이 많은 공연은 아니지만 대중교통으로 접근을 안내하고 권장했다. 최대한 공연팀, 스태프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였다.
- 연습과정과 공연 기간 동안 식사를 기본적으로 비건식으로 설정하고 실천했다. 작업이 지속되면서 비건 지향 동료들이 늘어났다. 기본적으로는 비건식이지만 옵션으로 논 비건식을

신청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 ‘풀뜯는_바람컴퍼니’에서 비건식당이나 음료들을 함께 소개하고 있다.

5) 실천의 효과

작업의 형식과 태도에서 비거니즘 지향

- 작업 방식과 팀 내에서 비거니즘을 지향하게 된 게 큰 변화인 거 같다. 당연하거나 익숙한 방식, 지금껏 살아온 방식이나 태도를 전환하는 게 실천이 될 수 있다. 기후위기에 관해 알게 될수록 좌절감이나 우울감에 빠지기 쉽다. 예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적극적으로 찾고, 우리가 바라는 세계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고기, 돼지> 작업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공장식 축산업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인간 비인간 존재를 교란하면서 경험해 보게 했다. 기후위기에 대해 담론을 형성하고 싶은 시작점에서, ‘이 이야기로 의견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다. 당시, 관객은 모두 논비건이라고 설정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인식들이 많이 변화했다. 지금은 ‘우리 함께 같이 동료가 되자’라는 태도가 된 거 같다. 관객들 또한 비건 동료라고 생각하고 공연을 만들어가고 있다. 긍정하는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면서 만드는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6) 실천의 어려움

실천의 유효성에 대한 고민, 창제작 시간과 노동의 증가

- 기후위기에 유효한 방식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된다. 탄소중립을 한다고 해서 인쇄물들을 다 없애고 디지털화가 되면 디지털 약자는 접근하기 어렵다. 디지털에 사용되는 전기, 데이터, 에너지도 탄소를 발생한다. 가시적으로 탄소를 줄이는

방향이 무엇일까에 대해 깊게 생각해봐야 하는 것도 많고,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다.

- 기존에 익숙한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고 방법을 찾아야 하다 보니 누군가의 노동이 증가한다. 또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빠르게 확정되어야 한다. 공연을 하다 보면 기존에 상상했던 것과 구현되는 것들에 오차가 있을 때가 있다. 그럼 현장에서 바로 바꾸거나 대체재를 찾는데, 실제 기후위기 대응을 생각하다 보면 가용자원을 확인하고, 어떤 재료로 어떻게 변형할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7) 개선을 위한 제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의 투입

- 기후위기 대응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 팀 내에 기후위기 대응을 전담하는 인력이 필요하다.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집중적으로 리서치하고 방법을 찾는 것, 사전부터 사후까지 과정을 기획하고 과정간의 연결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 사람의 노동에 대한 예산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 창제작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유효한 정보들이 생산되고, 유효한 정보가 확산될 수 있어야 한다. 실제 제작년에 프린지에서도 안내서를 나눠주기도 했다. 시각예술 분야에서는 재료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

8) 추가적 실천

대체에너지 사용에 대한 고민과 실현

작업을 실행하는 과정뿐 아니라, 작업의 내용에서 기후위기를 더 많이 다뤄야 할 거 같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방식으로 에너지를 사용해서 관객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작년 <예술덧발 예술가 레지던시-기후변화>에 참여했다. 작년 레지던시의 주제가 ‘기후위기와 에너지’였다. 태양광 패널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 파워뱅크에 저장해 공연하는 작업을 워크숍 공유회에서 진행했다. 4월 <A. SF> 공연에서 전기 사용을 최대한 지양하고자 음향 시스템을 블루투스 스피커로 전환했지만, 공연 사이 스피커와 맥북을 재충전 해야해서 공공화장실에 라인을 늘어뜨려 충전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전기가 필요했다. 그리고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도 든다.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

9) 나누고 싶은 정보

① 비건편의점 WIKI

비건편의점은 일상에서 비거니즘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잡학 위키로, 비거니즘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이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고 있다. 비거니즘 지형도 구글맵을 통해, 매우 간편하게 가까운 비건 음식점을 찾을 수 있다. 지역마다 채식 메뉴가 있는 곳과 채식 옵션이 있는 곳까지 세심하게 나뉘어 있다. 비건과 관련된 현재의 쟁점이나 새로운 시각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다. 2022년 12월 31일 위키독 서비스가 종료함에 따라 운영 중단되었다.

② 블리스코 Blisgo

쓰레기 분리배출방법 검색 서비스로 웹과 앱으로 출시되었다. 블리스코에서는 세상 모든 쓰레기의 올바른 처리 방법, 정확한 분리 배출법, 유용한 재활용 방법, 친환경적으로 대체하는 방법 등 다양한 쓰레기 정보를 제공한다. <https://blisgo.com/>

③ 채식한끼

채식을 통해 사람과 지구의 건강을 지킨다는 미션으로 채식앱 <채식한끼>와 <채식한끼물>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 채식 커뮤니티와 SNS 활동을 시작으로 채식앱을 개발, 다양한 채식식당을 검색하고 리뷰를 쓰거나 읽을 수 있다. <채식한끼물>은 채식.비건 쇼핑몰로 비건.순식물성 상품만을 큐레이션하여 판매하고 있다.

▶ <채식한끼> 앱 다운로드 <https://beyondnext.net/> <채식한끼물> <https://m.hanggi.kr/>

위워크인투

<코끼리택시>

#에너지

#이동

#초록감독

#그린라이더

<코끼리 택시> 사례는 서면 인터뷰를 통해 정리하였고, 인터뷰에는 위워크인투의 황혜신 프로듀서가 참여하였다.

사진 ©위워크인투

<코끼리 택시>는 기후위기 문제를 나와는 상관없는 방 안의 코끼리로 인식하지 않고 공론화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방 안의 코끼리 elephant in the room는 모두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결할 수 없기에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현상을 일컫는 심리학 용어로, 너무나 심각하고 거대한 기후위기 문제를 애써 외면하려는 우리의 모습을 반영한다.

기후위기 관련 다양한 결의 이야기를 가상과 실제가 혼재된 택시 안과 밖의 이야기로 구성한 <코끼리 택시>는 창작의 결과물뿐만 아니라 창작 과정도 작품 안에 녹여 창작자들이 느꼈던 시행착오와 딜레마를 관객들과 공유하는 구조이다. 코끼리 택시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추후 다양한 예술가들과

**코끼리택시
운행을 종료합니다.**



협업하며 기후위기 이야기를 연작으로 제작할 예정이다.

2020년 설립된 위워크인투 We Walk INTO는 거리예술 연구, 교육, 창작 활동을 하는 단체로 거리예술 생산자와 향유자, 매개자가 원활하게 소통하며 나누는 장을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거리예술정보플랫폼 거리예술로(www.intostreetarts.com)를 운영하고 있으며, <거리예술기록보관소>(2021) 등의 창작 활동과 드라마투르그로서 거리예술 및 축제기관과 협업하고 있다.

1)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코로나 기간, 거리예술가들과 기후위기 관련 책 읽기와 토론 진행

2020년, 코로나가 한참이었던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기간, 몇몇 거리예술가들과 독서모임을 진행하였다. 비대면으로 다양한 주제의 책을 읽고 이야기하는 모임인데, 주제 중 하나가 기후위기가었다. 관련된 책을 읽고 토론하면서 기후위기가 현재 인류가 맞닥뜨린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였다. 또한 기후위기에 대한 정보량이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관계성에 기반하여 기후위기 문제를 소통하는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영감을 얻었다.

2)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인식과 계기

예술가로서 창작작 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법들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

모임을 통해 다양한 결의 책을 다수 읽었으며, 의제를 정해 토론하는 일련의 세션을 가지며, 개인의 삶에서, 예술가로 창작 및 공연을 하는 과정에서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고민하였다. 정보를 얻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간접 경험 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였으며, 이를 실천하는 데도 공론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함께 소통하며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범위를 인식하게 되고 이를 공개하며 실천의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일례로 기후위기대응 중 하나로 독서모임 기간, 두 달 정도 육식 제한을 실천하였다. 이는 이후 소박한 삶 살기 실천으로 이어졌다. 즉, 실패는 하고 있지만, 자원을 절약하며 사는 삶에 대해 인식하고 실천하게 되었다.

3) 실천의 시작

기존 작업에 대한 성찰, 기후위기를 고민하며 자연스럽게 작업으로 연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2020년 예술가들의 모임과 소통이 큰 계기가 되었으며, 실상 코로나가 가장 큰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로 예술가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만남 역시 제한되는 시기를 겪었다. 거리예술 및 축제 분야에서 주로 활동했었기에 비대면과 언컨택트의 세상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작업의 가치에 대해 성찰해 볼 수밖에 없었다. 반성도 있었다. 스펙터클을 추구하는 소비의 축제가 과연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것일까? 이러한 고민을 동료 예술가들과 나누면서 기후위기를 다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이에 개인으로서, 또한 예술가로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고민하고 작업으로 실행해 보고 싶었다.

4) 창제작 과정의 실천 사항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공감과 토론, 초록 감독 선임, 창작자의 탄소발자국 줄이기

- <코끼리 택시>는 작품 자체가 기후위기 이슈를 다루는 작업이기에 작업 과정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공연에 녹여내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서 본격적인 창작 전에 참가자들 모두가 기후위기 관련 책을 읽고 아젠다를 두어 함께 토론하는 세션을 가졌으며, 실제 토론 내용이 공연 안에 들어가기도 했다. 창작 과정과 탄소중립 실천은 많은 부분 충돌할 수밖에 없다. 농담처럼 우리가 공연을 창작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공연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인 기후위기 대응에 가장 적합한 실천이라는 이야기도 자조적으로 하였다.
- 늘 딜레마 상황이 있었다. 특히나 <코끼리 택시>는 택시라는 대표적인 화석연료를 태우는 매체를 사용하는 지점에서도 함께 고민하였다.
- 창작 과정을 잠시 소개하자면, 제작 과정 중 탄소중립 활동을 위해서 ‘초록 감독’을 선임하였다. 초록 감독은 우리가 임의로 정한 포지션으로, 전 참여자의 초록 활동 참여를 독려한다. 여기서 초록 활동이란 기후위기 이슈를 인식하고 이를 초래하는 행동들을 작업 과정에서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활동을 의미한다. 초록 감독은 코끼리 택시 운행 준비에 있어 기후위기 이슈와 관련된 소통과 공유를 책임지며 초록 활동 계획서(그린 라이더)를 작성한다. 그린 라이더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 또한, 창작 과정 중 이동에 따른 탄소발자국 계산하였다. 본격적으로 제작 과정에 임하며 창작에 참여하는 6명의 이동(대중교통 이용, 자차 등)에 따라 발생하는 탄소발자국을 계산하는 것이다. 또한, 탄소중립을 위해 행하는 개별

노력에 대한 선언의 시간을 가졌고, 이를 지켜나가는지 서로 독려했었다. 개인적으로는 의류구매를 절제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실천하였다.

5) 실천의 효과

재료와 구매에 대한 고민을 통해 소비 과정에 대한 반성

공연제작 기간 내내, 예를 들어 식사메뉴를 정할 때나 공연에 사용할 소품 재료를 정할 때 등 대부분의 순간에 딜레마에 빠졌다. 보다 효과적인 창작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들이 있지만, 이에 대해 고민해야 했다. 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었고 그동안 얼마나 무신경하게 소비해왔는지 깨닫게 되었다.

6) 실천의 어려움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정보·경험의 편차

- 짧고 얇은 경험이었지만, 연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함께 문제의식을 느끼고, 동의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연약함, 딜레마, 어려움을 서로 토로하고 힘을 나누어야만 간신히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 기후위기 이슈 및 실천에 있어서 정보와 경험의 양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당연히 이해되고 마치 디폴트값처럼 가지고 있는 내용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새롭고 낯설기에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필요하였다. 이것들을 녹여내는 과정이 어려웠다. 결국, 공감과 행동을 위해서는 시간과 공부가 필요하다.

7) 개선을 위한 제언

기후위기 대응을 함께 공부하고 고민하는 매체, 플랫폼 필요

- 예술가들은 이미 기후위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다. 일단은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편향적인 생각을 갖지 않도록 정보에 노출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스스로 찾아 읽고 고민하고 깨닫고 행동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반복이 필요하다. 늘 잊게 된다.
- 관에서 표준을 제시하고 이를 따르라는 접근보다는 함께 공부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만드는 매체 혹은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후위기 문제가 패션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

8) 추가적 실천

기후위기 관련 정확한 정보의 생산-수용-확산 필요

- 기본적으로 '기후위기이슈 노출' 세션이 필요하다. 기후위기에 대해서 서로 다른 정보량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에 '공부'(라는 단어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지만, 무언가에 노출되고 스스로 알아간다는 것에 적합한 단어를 찾을 수가 없어서 사용)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 작업 자체가 기후위기와 관련이 없다면, 참여자들은 불필요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여 그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자료가 있었으면 한다.
- 규칙을 제공하는 스탠다드 보다는 기후위기 이슈가 왜 우리의 창작과 관련 있는지 수궁하고 기후위기 이슈를 궁금해하고, 편향적이지 않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는 소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9) 나누고 싶은 정보

아직은 과정 중에 있지만 코끼리 택시 작업을 하며 만든 기후위기 대응 관련 체크리스트를 공유한다.

기획 _ 체크 리스트	○	△	×
전체 예산에 환경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였는가? (처리, 유지비용, 전반적인 재활용 비용 등)			
환경이슈 관련 관리자(초록감독)가 있는가?			
기후위기이슈에 대한 정보를 계속 접하려고 노력하는가?			
기후위기관련 내부, 외부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가?			
기후위기 이슈공론화를 위해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가?			
홍보 _ 체크 리스트			
홍보 및 디자인, 제작물에 있어 친환경적인 제작 방법을 모색하였는가? (1. 불필요한 인쇄 줄이기 / 2. 친환경 소재의 종이 사용 / 3. 온라인으로의 전환)			
오브제, 테크놀로지 _ 체크 리스트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였는가? (1. 대안이 있는지 확인한다 / 2. 대안을 시도한다)			
새로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 보다 기존의 것을 이용하였는가? (소비를 줄이고 광범위하게 재활용하여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임) : 무형의 가치도 파악			
재생가능한 자원이나 지속가능한 자원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는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장비를 구입 및 사용하였는가?			
공식 인증(친환경, 에너지 절약, 공정무역 등)이 있는 제품을 이용하였는가?			
재사용을 원칙으로 폐기물은 최소한으로 하되, 발생 시 분리 배출을 철저히 진행하였는가?			
최소한의 조명 및 일광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였는가? (1. 조명으로 인한 에너지 소모가 적도록 디자인을 한다 / 2. LED 조명)			

연습, 일상 _ 체크 리스트	○	△	×
사용공간의 에너지 효율을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는가? (전등, 냉난방 등)			
최소한의 조명으로 공간을 밝히고 있는가?			
겨울철 실내 적정 온도는 18~20도 /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는 26도로 유지하고 있는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가? (텀블러, 장바구니, 개인용 수저, 손수건 등)			
음식을 버리지 않고 있는가? (필요한 만큼만 준비하여 남은 음식이 없도록 한다. 먹을 수 있는 남은 음식이 있다면 안전하게 수거하고 재분배한다)			
배달 음식은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곳에서 하고 있는가?			
회식에는 공장식축산업 고기를 먹지 않고 있는가?			
사용공간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간의 쓰레기 처리 방법을 공유하고 안내하였는가? (1. 제작소 / 2. 창작장소(연습실 등) / 3. 공연장소)			
공연팀, 초청측, 관객 _ 체크 리스트			
공연이 비인간 및 주변의 환경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예방하였는가?			
대중교통으로 접근가능한 공간을 공연장소로 선택하였는가?			
공연장소의 대중교통 및 도보에 대한 안내를 상세하게 제공하였는가?			
초청 주최 측, 공연 장소의 환경정책이 무엇인지 확인하였는가?			
공연장과 숙소의 거리를 최소화하여 도보 및 자전거를 이용하였는가?			
초청 지역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였는가?			
이동시 수송수단을 공유하였는가?			
필요한 장비, 자원, 인력 등은 가능한 초청 지역에서 조달하였는가?			

이성직

<sf식당>

#물자와 재료

#식품

#비건푸드

<sf식당> 사례는 서면인터뷰를 통해 정리하였고, 인터뷰에는 이성직 연출이 참여하였다.

사진 ©이서연

<sf식당>은 AD 2022년의 50년 후인 AM 30년의 제철음식 식당이다. AM(After Melting) 기년법은 북극의 빙하가 사실상 사라진 AD2042년의 9월을 원년으로 삼는다. sf식당은 기후위기로 인해 재편된 미래 시공간을 다양하게 맞본다. sf식당은 기후위기로 인한 디스토피아와 유토피아의 사이 그 어딘가에 있다. 사라진(질) 것들을 상상하고 애도하며, 여전히 남아 있는(을) 것들을 기록한다. sf식당은 음식의 세계를 통해 마주하고 싶은, 기억하고 싶은 미래를 그린다. 공연 창작자 이성직은 ‘공연’으로 호명되는 다원예술, 거리·공공장소예술, 연극 등을 만든다. 주로 일상적 행동을 공연의 맥락으로 전환한다. 2020년 54일의 장마 이후 기후위기를 가까이



의식하고, 기후위기 시대를 든든히 살아낼 수 있도록 격려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sf식당>, <Let's Birding!>, <감자전스 www.gamjajeons.com> 등

1)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2020년 역대 최장기간으로 기록된 54일의 장마기간을 거치며 다소 어렵팠었던 '기후위기'라는 인식을 아주 가까이서 체감할 수 있었다. 2020년 5월 29일부터 중국과 일본에 많은 비를 쏟아냈던 동아시아 거대 장마전선이 2020년 6월 10일부터 한반도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이동해 오면서 6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전국적인 집중호우 사태이다. 이후, 8월 중순엔 장마전선이 올라가며 잠시 쉬어갔지만, 하순부터 태풍 3개가 연달아 한반도를 향하면서 폭우 사태는 9월 12일까지 지속되었다.

2)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인식과 계기

내가 하는 작업은 대부분 일상에서의 행동이 바탕이 된다. 때문에 기후위기와 관련한 작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 행동을 자연스럽게 실천하기 시작했다. 구체적인 예로 기후위기 시대의 식재료, 음식과 관련한 작업을 하며 일상에서 '채식'을 진행하게 되었다.

3) 실천의 시작

2020년 54일의 장마 이후, 무수히 마주한 기후위기의 흔적들을 보고, 듣고, 감각하고 살아가며 쌓인 위기감과 더불어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위기에 관한 작업을 한다는 모종의 책임감이 결합되어 기후위기 대응으로 연결되었던 것 같다.

4) 창제작 과정의 실천 사항

비건 지향과 중고 물품 사용

- 팝업 레스토랑 형식의 공연이었기에 음식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했다. 알지 못하는 미래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음식 개발에 있어 특별한 제약을 두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의 제약을 둔 것은 비건이었다. 메뉴 개발 리서치(참고할 식당 방문, 식재료 구매, 요리 개발 등)에서부터 최종 메뉴 선정에 이르기까지 모두 비건 음식으로 진행했고, 준비 과정 중 협업 창작자들과의 식사에선 비건 음식을 최대한 지향하려 했다.
- 공연 공간을 꾸미는 데 있어 가능한 중고 물품을 사용하려 했다. 물론 이는 공연의 컨셉(생활감 있는 일상적 공간, 어떤 고민이 지속되고 있는 연구실 같은 공간)에서부터 시작된 선택이었지만 결론적으로는 탄소중립 실천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더불어 공연이 종료된 뒤 물품 대부분은 프로덕션 내 인원들과 분배하여 일상에서 재사용하고 있다.
- 프로젝트 중 공연의 일환으로 소책자를 인쇄했는데 발행 부수를 배포 예상 인원 딱 맞게끔, 넉넉지 않게 소량 인쇄했다.
- 그리고 아주 사소하게는 프로젝트 팀원들과 공동 리서치를 위해 제주도를 방문했었는데 제주도에서 서울로 돌아올 때 비행기 대신 배로 이동했다. 물리적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업 창작자들과 줌 화상회의로 미팅을 많이 진행했다(특히, 서로 간 거리가 먼 협업 창작자들과는 대부분의 미팅을 줌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5) 실천의 효과

개인이 측정·체감하기 어려운 효과

한 개인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효과·성과를 가시적으로 체감하기는 사실 어려운 것 같다. 그럼에도 되짚어보면

스스로에 제약을 두고, 그 제약을 다만 제약으로만
생각하기보단 제약을 하나의 발전적 제안으로 전환 시키는
연습이 되었던 것 같다.

6) 실천의 어려움

기후위기에 대응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실천은 무엇일까?

우리의 작은 실천이 과연 탄소중립에 실제로 기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다. 예를 들면 인쇄할 때 기존의 종이
대신 사탕수수로 만든 친환경 종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고민을 했다. 그런데 사탕수수 종이의 경우 나무를 사용하지
않고 생산한다는 점에 있어선 친환경적이라 볼 수 있지만,
유통 과정에 있어선 기존 종이보다 멀고, 복잡하여(해외
수입) 과연 친환경적이라 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다.
친환경적이라고 가정하는 어떤 실천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친환경적'일 수 있을지, 더 나아가선 기후위기를 늦추기
위한 지금과 같은 실천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유의미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을 계속 갖게 된다.

7) 개선을 위한 제언

덜 모순적 선택을 고민하기, 최선의 선택을 쌓아가기

이제껏 마주해보지 못했던 어려움을 단번에 해소하지 않으려
버티는 태도가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기후위기의 구체적인 모습들, 그리고 이를 마주하는 완전히
못한 스스로를, 모순적인 스스로를 직면할 수 있는 넉넉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마주한
구체적인 어려움을 직면하고, 더 나은(덜 모순적인) 선택이

무엇인지 부단히 고민하며 최선의 선택을 쌓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8) 추가적 실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반복적 기록

이번 인터뷰를 통해 작업에서 실천하고 있는 크고, 작은
탄소중립의 순간을 세부적으로 기록하고, 공유함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게 되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의 작업에서도
이어나가고자 한다.

9) 나누고 싶은 정보

막연한 거대함을 재미로, 네이버 웹툰 <기후위기인간>

일상에서 마주하는 기후위기의 흔적을 기록한 네이버
웹툰 <기후위기인간>이 있다. 일상에서 누구나 할 법한
기후위기의 고민을 깊이 있는 리서치 자료들과 잘 연결한
작업이고, 무엇보다 '재미있다'. 기후위기, 탄소중립 이런
단어들 자체가 주는 막연한 거대함이 있는 것 같다. 기후위기
시대의 창작자들에게 그런 거대함을 잘게 부셔 일상과
구체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점에서 좋은 동력이 되었던 작업이다.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서 지속가능한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선 기후위기가
주는 거대한 피로감을 적절히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점에서 이 작업의 '재미있음'이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

5 콜렉티브딩굴

<꿈의 방주: Hunger Stone>¹⁰

<꿈의 방주:Hunger Stone>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doingle.around/>

#물자와 재료

#기후 정의 창작집단

#기후와 노동

<꿈의 방주:Hunger Stone> 사례는 작품 관련 발행 자료 및 본 연구 초기 성지수 연출 인터뷰 자료를 통해 정리하였다.

사진 ©콜렉티브 딩굴 인스타그램

<꿈의 방주:Hunger Stone>는 어느 날과 다르지 않던 오후. ‘헝거스톤’을 검색하곤 갑자기 사라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다. 연락이 닿지 않는 상사, 동료, 가족, 또는 애인. “E”는 없어진 이(들)을 찾아 자신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 단서를 모으기 시작하는데. — Hunger Stone : 기근석. 심각한 가뭄의 지표로 삼아온 강 또는 호수 밑의 돌. 1616년에 만든 엘베강 헝거스톤에는 다음과 같이 새겨져 있다. “내가 보이면 통곡하라”

¹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21), 함께 지구를 뒹굴며 돌보는 힘_기후 정의 창작집단 ‘콜렉티브 딩굴’, 2021.05.24.



컬렉티브 뉅굴¹¹은 나르시시즘적 연극의 관습을 깨뜨리려는 시도로부터 시작하였다. 공연예술의 본질은 공동현존을 통한 감각적 소통 및 관계 맺기라는 믿음 하에, 뉅굴은 신체성과 공간성과 의미와 본질을 만나기 위해 다원적인 예술 언어를 기반으로 놓고 있다. 2012년에 출발하여 세월호 이후의 연극, 미투운동 이후의 공연예술을 창안해 오다가, 2020년 팬데믹이라는 직격탄을 맞고 다시금 예술(가)의 존재론적인 고민을 맞닥뜨렸다. 그간의 작업을 통해 뉅굴은 ‘신체성과 공간성을 구성하여 만남의 장을 꾸리는 사람들’이라는 언어를 구축했지만, 만남이 그 자체로 위협하고 “해로운” 사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얼마 전엔 ‘기후정의 창작집단’을 선언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제대로 ‘해로운’ 존재들이 되겠다는 뜻이다. 성장, 개발, 이익, ‘먹고사니즘’이 0순위인 나라에서 공연예술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부터 우리는 이미 신자유주의 시스템의 하자이자 균열이었으니, 그걸 당당히 인정하고 더 신나고 크게 얘기하고자 한다. 성장을 빙자한 착취를 그만두라고, 생존이 최우선이라 말하면서 실은 적자생존으로 약한 존재들을 지우는 짓을 멈추라고 말하려 한다.

1)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기존에는 세월호 이후, 미투 이후에 필요한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예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문제의식을 점차 확장하다 보니 기후위기까지 맞닿게 되었다. 생태적, 기후정의적 관점이 우리(예술인들)에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결성하게 된 게 컬렉티브 뉅굴이다.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사랑하는 존재들의 아픔과

11 청년허브 아야프(AYARF) 웹사이트(<https://www.ayarf.net/2nd-fellows/collective-doingle-around>) 펠로우에 게재된 ‘컬렉티브 뉅굴’ 소개 인용

죽음을 경험하며 비로소 기후위기가 ‘내 안에 있는 서울의 도시성’에서 왔음을 깨달았다. 너무 빠르고 공공의 영역에서조차 경쟁을 부르는 신자유주의 속에서 도시도 당연하게 기후위기를 맞이했다. 이것은 기후위기가 단순히 ‘날씨를 예측할 수 없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약자부터 죽어가는 것임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자본 이외의 가치들이 ‘소멸’되고, 소통의 장으로 공존을 위한 사회적 돌봄을 통해 ‘생명’을 느끼고, 더 이상의 피해와 죽음으로부터 존재하기 위한 ‘소명’을 통해 기후위기를 감각하게 되었다.

2)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인식과 계기

컬렉티브 뉅굴에서는 ‘예술인을 위한 기후 세미나’를 1, 2기에 걸쳐 진행 했다. 기후위기가 대체 예술과 어떤 관계이며, 우리가 왜 알아야 하는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는 자리였다.

특히 기후위기를 알고 난 후 동료 예술인들은 예술활동이나 생활 일반에서 자기가 하는 선택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궁금했다. 같이 모여 정보도 교환하고 얘기도 나누면서 나만의 관점을 갖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다.

1기 세미나에서는 과학적 사실들,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현 상태들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되었다. 2기 세미나에서는 1기 세미나에서 기본 지식을 쌓은 동료 예술인들이 기후위기를 자신의 언어와 경험으로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지를 공유할 수 있었다. 각자의 작업을 통해 예술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과 방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실천의 시작

2020년 환경의 날을 맞아 콜렉티브 덩굴은 기후 정의 창작집단 선언을 했고, 기후와 정의와 예술이 기후위기 시대에 어떻게 조우할 수 있는지를 사유하고 시도한다.

2020년 서울프린지페스티벌에서 발표한 <연기의 해로움에 대하여3> 작품에서는 기후위기와 팬데믹 파시즘 때문에 사망한 ‘연극’의 무덤 앞을 배경으로 이전과는 같은 방식으로 예술할 수 없음을 느끼며 인간과 비인간을 포함한 타인을 착취하지 않는 작업, 기후위기 속에서의 새로운 만남을 위한 언어를 찾는다.

4) 창작작 과정의 실천 사항

기후 정의 창작집단 선언¹²

기후 정의 창작집단 선언

콜렉티브 덩굴은 2020년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기후 정의(Climate Justice) 창작집단으로의 전환을 선언한다.

우리가 마주한 팬데믹과 사상 최악의 폭염은 제6의 지구대멸종을 초래할 기후위기 시대의 서막에 불과하다.

세월호 이후의 연극, 미투운동 이후의 공연예술의 역할 및 미학을 고민하고 구축해 온 덩굴은 이제 기후 정의 창작 집단으로서 기후위기에 맞서는 정의로운 창작 활동이 필요함을 선포하고 그린뉴딜 논의에 예술과 예술가가 기여하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의 그린뉴딜은 정부가 말하는 산업의 전환만이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소통과 돌봄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는 총체적인 시대적 전환이어야 함을, 모든 구성원이 에코 페미니스트인 콜렉티브 덩굴은 견지하는 바이다.

성장과 개발, 경쟁에 미쳐 공멸로 달려가는 오늘날, 탈성장을 자처하며 다양한 소통의 방법과 가치를 추구해 온 예술가 집단은 현 시대의 종말을 고하고 새 시대를 여는 주체가 되기에 마땅하다. 노동자성(姓)조차 인정받지 못한 도시 빈민이었을 때조차 예술을 무기로 사회의 부조리와 싸워 온 우리는 가만히 주저앉아 기후난민이 되는 길을 택하기보다 생태적-공적 가치와 정의로운 사회 전환을 위하여 예술의 생태적-공적 가치와 정의로운 예술가의 역할에 대한 예술적 발화를 이어갈 것이다.

2020년 6월 5일

콜렉티브 덩굴

5) 실천의 효과

예술의 본질, 삶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후위기의 시대, 예술은 결코 뒤로 밀려선 안 되는 중요한 삶의 태도라는 인식의 확장과 확산이 필요하다.

‘기후정의 창작집단 선언’ 이후 기후위기 시대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전과 똑같이 창작할 수 없음에 대해 감각했으며,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훨씬 더 방법론이나 목적부터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다.

¹² 콜렉티브 덩굴(2020), 기후 정의 창작집단 선언, 콜렉티브 덩굴 인스타그램

기존의 사회가 요구하는 관계 맺기 방법이 착취였다면 그것을 다시 ‘돌봄’으로 돌리는 작업이 기후위기 시대에는 필요하고, 그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문화예술(인)이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한다.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획 의도와 목적이 공개되고 이에 적합하게 방법론이 작동하고 있는지, 과정 내에 시민 모니터링이 있는지, 사업 자체에서 탄소중립을 위해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6) 실천의 어려움

기후위기는 하나의 의제화된 소재로 소비되거나 누군가가 쥐고 있는 ‘뜨는 이슈’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기후위기 대응이 누군가의 돌봄 노동이 늘어나는 결과가 아니어야 할 텐데 하는 고민도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하게 될 때 늘어날 수밖에 없는 노동을 어떻게 함께 나누고 보상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필요하며, 공공 재원이 이런 형태로 쓰일 수 있어야 한다.

7) 개선을 위한 제언

기후위기가 사업이나 작업의 소재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과 작업의 방식 안에서 밀접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전과 다르게 작업을 한다고 하면 방법론이 바뀌어야 하며 기존의 질서와 방향성에 대한 전환, 소재가 바뀌고 작품 안에서 고민하는 것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삶이 전환되어야 하며 총체적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예술은 기후위기 속에서 공공기관이나 정부, 더 나아가 사회와 어떤 관계 맺음을 해나갈 것인가 능동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세금이 들어가는 큰 작업에서 기후와 관련된

6 그린피그 <나무는 신발가게를 찾지 않는다>

그린피그 <나무는 신발가게를 찾지 않는다>
블로그 <https://blog.naver.com/greenpig2006>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wearegreenpig/>

#물자와 재료

#폐기물

#기후와 소비

그린피그 <나무는 신발가게를 찾지 않는다> 사례는 온라인 인터뷰를 통해 정리하였고, 인터뷰에는 윤한솔 연출이 참여하였다.

사진 ©그린피그

‘나무는 신발가게를 찾지 않는다’는 윤영선의 7쪽짜리 초고에서 시작해 그린피그 배우와 연출의 공동창작 과정 및 전성현 작가의 추가, 재구성을 거쳤다. 작품에는 동화, 신화, 고전, 상상 등에서 출발한 다양한 모티브가 담겨 있다. 정휘창 작가의 동화를 원작으로 작품의 중심을 관통하는 <원숭이 꽃신>, 직립 보행과 고통의 근원을 다룬 <태아 잡담>, 태아와 엄마의 협상을 보여주는 <계약>, 아버지의 죽음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나무는 신발가게를 찾아가지 않는다>의 네 가지 에피소드가 교차한다. 무대에는 봉제공장의 자투리 천을 모아 만든 폐기물 산이 놓이고, 그로테스크한 분위기로 인류의 끝을 암시한다.



특히 ‘태어나고 싶지 않은 태아’의 모습은 지극히 현실적인 디스토피아를 상상하게 한다. 그린피그의 작품 세계는 미시사적으로 보이지만 시대의 거대한 이면을 담고 있다. 오늘날 기후위기는 본 작품을 초연했던 10년 전보다 더욱 가까운 단어가 되었다. 작품을 통해 현재 우리 문명이 처한 위치를 고찰하고, 위기의 시대에 인류가 가야 할 길을 모색한다.

그린피그는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는 신념과 뜨거운 감성을 가진 새로운 연극을 하고자 모인 사람들이다. 의심 없이 혹은 하지 않고 진행되는 우리 문명에 대한 진단을 하는 연극을 찾고자 모인 사람들이다. 주제와 예술형식의 진보를 고민하는 연극을 하고자 모인 사람들이며 그린피그의 작업은 저항 혹은 엑소더스를 위한 매뉴얼 혹은 도구이다.

1)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2003년 원전, 온난화와 관련한 신문 스크랩에서 시작

2003년부터 종이신문 스크랩을 진행했다. 원전, 온난화 관련한 스크랩을 지속해서 해왔다. 작년부터 양이 급속히 줄기 시작한다. 관련 주제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게 20여 년 됐다고 하면, 코로나 이후 기후위기 관련한 기사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제 굳이 스크랩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관련 정보가 많이 생산되고 언급된다. 내가 보는 신문에서만 하루에 최소 두 건 이상의 기후, 에너지 관련한 기사가 매일 나오는 것 같다.

<원전을 멈춰라: 체르노빌이 예언한 후쿠시마> 책을 읽게 되었고, 그러면서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에너지 문제에 관해서 온난화, 기후변화를 들여다보았다.

최근에는 관심의 문제라기보다는 매일 접해야 하는 뉴스가 되었다. 재난이 일상화되다 보니 어딘가의 홍수나 추위 등이 매일 기사에 나온다. 적응할 시간도 없이,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다.

2)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인식과 계기

연극을 지속하기 위한 의상, 장치, 무대의 재활용

기후위기에 대해 미디어에서도 정보가 쏟아지고, 국제기구에서도 이야기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튜베리의 사례도 있다.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자체는 생겼다고 본다. 대부분 인간이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자신을 지목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이 일상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감대는 만들어졌다고 본다.

하지만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것이 개인이 윤리적 실천의 영역으로만 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금융, 산업화와 같이 더 큰 단위에서의 기후위기의 주범들이 있다고도 생각한다.

공연에 사용된 의상과 장치, 무대 이런 것들을 재활용해서 사용한 지는 좀 됐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이었다기보다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연극을 지속하기 위해 고민한 결과가 자연스럽게 실천으로 이어졌다. 연극이라는 장르가 생존하기 위한 전략들이 지금 시점에 맞아떨어지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3) 실천의 시작

작품의 풍경들을 구현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맥락

* RE100

재생에너지 100%(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2014년 뉴욕기후주간을 맞아 국제 비영리기구 '더 클라이밋 그룹(The Climate Group)'이 시작한 국제캠페인이다. 'RE100'은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린피그는 공동창작을 한다. 리서치 기반의 텍스트나 개인의 기록들을 갖고 공연을 하는 편이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목하는 이슈에 대해 스토리 과정이 이루어진다. 체르노빌·후쿠시마 원전, 탄소중립, RE100과 관련한 리서치들을 진행하기도 했다.

작품을 만들 때 주어진 규모 안에서 제작도 하고, 매출도 계산할 수밖에 없다. 단체의 생존을 생각하며 예산을 줄이며 제작하는 노하우가 쌓이게 되었다. <나무는 신발가게를 찾지 않는다> 이전 작업에서도 의상, 장치, 무대 등을 재활용했다. 코로나 이후, 기후위기와 대응에 관한 인식들이 보태져 재활용에 대한 비중을 어떻게 늘려나갈 수 있을까를 더욱 고민하게 되었다.

<나무는 신발가게를 찾지 않는다>는 원전에 투영된 인간의 욕망들, 그로 인한 아포칼립스적 풍경들을 다룬다. 그 세계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맥락을 따르게 되었다. 폐기된 것들, 버려진 것들로 구성된 세계를 그려야 했다.

4) 창제작 과정의 실천 사항

폐기물로 꾸린 무대, 기존의 것들을 활용한 무대 연출

<나무는 신발가게를 찾지 않는다> 공연의 무대 구성 요소는 폐기물이다. 짜투리 천들로 일종의 쓰레기 산이 등장한다. 2022년 3차례 공연하면서 동대문 인근 공장들을 다니며 천을 모아달라고 부탁했고, 그렇게 보유한 천들을 갖고 공연을

준비했다. 천 외에 등장하는 모든 것들은 연습실에 보유한 것들을 재활용했다.

동대문 공장들을 다니면서 엄청나게 많은 천들, 짜투리 천들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정말 이렇게 많은 옷이 필요한가를 고민하게 되었고, 배우들과 함께 이 문제를 갖고 스토리를 했다. 우리가 쉽게 사서 입는 옷들, 특히 스파 브랜드의 옷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소비되고, 폐기되는지를 알게 되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재활용 작업 이전에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소비하는 과정을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의상도 의상디자이너와 협의해서 기존에 있는 의상들을 활용했다. 의상들은 다시 보관하고 있고, 천 같은 경우는 3번 공연을 하는 동안 보관해서 사용하고, 다음 공연이 정확히 안 잡혀 폐기물 처리장에 가서 처리했다.

기존에 사용했던 가구와 자재들도 재활용했다. 해당 가구와 자재들은 중고로 매입하고, 중고로 되팔기도 한다. 새로 제작을 하지 않고, 기존의 것들을 활용하려고 한다.

5) 실천의 효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인식의 변화 체감, 기후위기 대응을 실천하는 노하우 축적

본의 아니게 공연이 주목받게 되었다. <나무는 신발가게를 찾지 않는다>는 e(환경)-3부작 프로젝트의 시작이다. 이 작품은 10년 전에 초연되었다. 당시만 해도 아무도 이런 이야기에 관심 두지 않았다. 우리 사회의 인식 자체가 달라진 것은 분명하다.

작업하는 입장에서는 공연을 만드는 취지나 공연에 담고 싶었던 의미들이 잘 전달되었다고 생각한다. 환경에 관한 이야기, 원전이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고, 그것들이 의미가 있겠다를 확인하게 되었다. e(환경)-3부작의 다음 프로젝트로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금융화, 자동화, 산업화를 이야기하며 환경과 노동에 관해 이야기하려 한다.

실제 무대에 쓰이는 다양한 것들이 새롭게 생산되지 않고, 기존의 것들을 재활용하는 방식들을 추구하게 되면서 그와 관련한 다양한 그린피그만의 노하우가 생겨나고 있다.

6) 실천의 어려움

휘발유가 아니라 전기차를 타면 환경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는 맥락에서는 큰 변화가 어려울 것 같다. 다른 방식의 인식들이 필요한데, 그 다른 방식의 인식과 접근이 무엇일까?

연극은 극장 공간에서 하는 것이고, 일상생활에서보다는 많은 전기를 쓰게 된다.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급진적으로 '전기를 쓰지 않겠다,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연을 하겠다'는 예술가들도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바로 급진적인 방식으로 넘어가는 것에는 공연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매뉴얼까지는 아니지만 일종의 뺄셈 방식으로 생각을 한다. '이건 절대 안 한다'와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지만 가능한 일들을 실천하려고 한다.

7) 개선을 위한 제언

인쇄물을 안 만들고 디지털화하면 디지털 폐기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인쇄를 하지 않으면 폐기물이 안 나오나 라는 고민을 내부에서도 한 적이 있다. 동심원을 늘리다 보면 끝이 없다. 공연 제작 또한 기존의 관습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기존의 관습 체계에서 벗어나야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나무는 신발가게를 찾지 않는다>는 시작부터 "폐기물로 하겠다" 선언하니 고민을 덜어내기도 했다. 제작하는 방식에서 기존의 관습을 깨고 전환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탐색이 필요하다.

춘천마임축제 사례는 서면 인터뷰를 통해 정리하였고, 인터뷰에는 춘천마임축제 강영규 총감독이 참여하였다.

사진 ©춘천마임축제

춘천마임축제는 해마다 5월 마지막 주 봄과 물의 도시 춘천에서 열리는 축제로 물과 불, 몸과 움직임을 통해 도시와 예술, 시민을 잇는 공연예술 축제다. 프랑스 미모스 마임 축제, 영국의 런던 마임 축제와 더불어 세계 3대 마임 축제로 손꼽히며 국제적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도시와 도시민이 가진 정서와 마음을 말 없는 움직임과 물, 불, 꽃, 빛, 영상 등 다양한 장르와의 융복합을 통해 ‘춘천 + 마임 + 축제’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가고 있다. 물과 불의 원초적 에너지를 기반으로 도시와 시대가 가진 욕망을 예술적 몸짓으로 풀어헤치는 ‘난장’의 축제다. 2022년 춘천마임축제는 5월 22~29일 총 8일간. 남이섬, 명동, 축제극장 몸짓 등 춘천시 전역에서 개최되었으며, 약 10만 명의 관객이 참여하였다.



1)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32년 역사의 춘천마임축제 코로나로 인한 사상 첫 취소, 재난 시대의 축제란 무엇인가?

춘천마임축제는 코로나로 축제가 중단되며 축제의 '전환'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규모'에 중점을 두었던 대규모 축제에서 감동과 스토리가 있는 명분이 있는 축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먹고 마시며 노는 유흥에 집중하는 소비향락적 축제에서 콘텐츠, 이야기, 사람이 만들어지는 생산적 축제로의 전환이 간절했다.

코로나의 발발이 기후위기와 무관하지 않듯, 축제의 전면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축제에서도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필수적인 것이라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었다.

2)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인식과 계기

다른 방식의 축제를 시도를 통한 새로운 발견

춘천마임축제 '2020춘천마임백선;100Scene' 프로그램 중 하나인 <걷다 보는 마임>은 드라이빙 스루 방식을 차용하여 진행되었다. 워킹스루 방식의 거리두기 축제 프로그램을 열자, 산책과 운동을 나온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였다. 불필요한 인쇄물이나 제작물 없이 축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춘천마임축제는 레고랜드 개발로 약 80%이상이 파헤쳐진 중도에 주목했다. 중도의 나머지 20% 공간은 10여년 이상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였다. 개발과 자연이 공존하는 중도의 환경 속에서 축제를 기획하였고,

공간 및 환경에 따라 작업의 방식 역시 자연 친화 방식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후 축제에서의 환경문제에 대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3) 실천의 시작

재난 시대, 춘천마임축제의 핵심가치인 공공성, 예술성, 축제성은 여전히 유효한가?

춘천마임축제는 팬데믹 영향으로 소규모 일상형 축제를 지속해오며 축제가 직면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 축제의 공적 가치, 축제는 도시가 가진 여러 문제(환경, 생태, 인간소외 등)의 솔루션으로 작용할 수 없는가?
- 대면무대가 사라진 지금, 과연 관객이 잃은 것은 무엇인가?
- 재난시대, 축제는 왜 해야 하는가? 잃지 말아야 할 중심은 무엇인가?

— 춘천마임축제 2021년 <지구의 봄>을 통한 시작

춘천마임축제 2021년 <지구의 봄> 여는 글

미래의 세대는 2020년과 지금을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정말 많은 일상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되찾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일상은 무엇인가? 하늘과 땅 사이, 그 안을 채웠던, 우리를 감싸 안던 그 많은 것들. 2021년 춘천마임축제는 이 아름다운 것들이 사라진 '침묵의 봄' 시절에 '침묵의 봄을 깨우기 위한 무언의 몸짓'을 시작하고자 한다. 꽃과 풀로 도시의 향기를 피우고, 새소리를 닮은 소리와 풍경을 울리고, 소박한 불과 빛으로

이 지구를 채우고자 한다. 우리가 정말 되찾아야 할, 다시 회복해야 할 ‘지구의 봄’을 위해.

춘천마임축제 2021년 <지구의 봄> 실천

- 축제는 지금까지 소비향락적, 반환경적인 모습으로 수많은 쓰레기를 배출했습니다. 현수막, 리플렛 등 수많은 홍보물 또한 축제가 배출한 쓰레기 중 하나입니다. 반성하겠습니다.
- 이제 축제는 아파하는 지구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그 동안 홍보를 위해 사용되고 버려졌던 인쇄물들을 없애고, 안전 안내를 위한 최소한의 옥외홍보물만 제작하며, 만들어진 옥외홍보물은 다음 시즌에 재사용하거나 재활용 제품으로 재탄생될 예정입니다.
- 일회용 홍보물을 대신해서 온라인·디지털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합니다. 배너 게시대 대신 40인치 모니터 안에 공연정보를 담아드리겠습니다.
- 축제장 곳곳에 비치된 QR 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프로그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축제장 내 안내소에 스마트패드를 비치하여 안내해드립니다.

4) 창제작 과정의 실천 사항

가. 춘천마임축제 2022 기후위기 대응 실천

① 전기 생산의 친환경성에 대한 대안 생성_ 유류발전기, 전기 축전방식으로 대체

춘천마임축제 2022에서는 이동식 유류 발전차/발전기 사용을 지양하고,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재활용한 친환경

축전시스템을 장착하였다. 걷다 보는 마음, 봄의 도시 등에서 친환경 스테이지를 구현하였다.

② 기존 전기설비 방식 대안 생성_ 모듈디자인을 통한 반영구적 전원 공급방식으로 대체

기존 축제장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전기 설비 및 분전방식 대신 규격화된 전원공급방식으로 전환하였고, 산업용 컨넥터를 접목한 각종 케이블의 연장 방식을 도입하였다. 모든 전선을 사이즈별, 용량별, 모듈화 시키고 PEC방수커넥터 및 PVC방수함을 사용했으며, 폐전선 제로화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경유가 아닌, 재생 에너지를 담은 발전기, 인디고(INDEGO)

인디고는 그린뉴딜, 탄소중립 패러다임 안에서 여러 야외현장에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솔루션을 제공 합니다.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팩으로 제작된 인디고는 독립된 전원으로 사용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디젤발전기가 가지고 있던 온실가스, 미세먼지, 소음, 악취 등의 걱정이 없는 안정적이고 깨끗한 전력 공급의 이점을 약속합니다. 인디고는 친환경 전력원에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건설현장, 긴급전력, 이벤트 현장 등으로 이동하여 화석연료 전력을 친환경 전력으로 대체합니다. <http://www.aeonus.co.kr/kr/>

③ 푸드코트 내 일회용기 근절_ 모든 메뉴와 푸드트럭에 다회용기 사용으로 전환

푸드트럭에서 버려지는 일회용기 대신 세척 후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기로 전환, 모든 푸드트럭에서 다회용기 및 다회용 컵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였다. 시식 후 반납, 세척 후 익일 재사용으로 쓰레기 배출량이 혁신적으로 감소하였다.

④ 화약이 중심이 된 기존 불꽃놀이 방식에 대한 대안

뿔나무로 만든 솟과 쭉, 소금을 한지에 싸서 만든 낙화봉을 불에 붙여 7M 상공에 매달아 생성되는 불꽃이 지상으로 낙하하는 방식의 한국 전통 불꽃놀이인 ‘낙화놀이’와 유럽형 이동식 불 공연팀과의 콜라보레이션을 추진하였다.

⑤ 축제 참가자 대상 안내, 설문조사 진행

탄소발자국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측정하였다.

- 축제장소까지 어떻게 오셨나요?
- 자가용 이용 시 몇 분이 함께 타셨나요?
- 어디에서 출발하셨나요(km 기준)?
- 몇 시간 이동하셨나요?
- 축제 참여 기간은?
- 2일 이상 참여 시 춘천 시내에서 숙박을 하셨나요?
- 본인이 축제기간 동안 실천하신 친환경 행동은?
- 본인이 행사장 내에서 발생한 쓰레기의 양은 어느정도입니까?
- 춘천마임축제에서 시행한 친환경 노력 중 가장 인상적인 것은?
- 춘천마임축제 행사장 내에서 친환경 지향의 지점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느낀 지점은?

5) 실천의 효과

① 유류발전기 대신 축전시스템 사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효과

- 2022 춘천마임축제 7일간의 행사 운영 과정에서 전력 공급 및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1,001.021 kgCO₂-eq로 확인되었다.
-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디젤발전기 가동에 따른 배출 비중은 약 86%이고, 인디고 가동에 따른 배출 비중은 약 14%로 나타났다.

- 특히, 전력 공급 필요량이 많아 디젤발전기를 가동한 27~28일의 경우 디젤발전기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약 90%를 차지하였다.
- 기존처럼 디젤발전기만 가동하여 전체 전력 공급 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1,360.729kgCO₂-eq로 확인되었으며, 친환경 축제 실현을 위한 본 과업 추진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1,001.021년kgCO₂-eq에 따라 약 360kgCO₂-eq 감축되었다.

② 온실가스 감축 기대효과

- 인디고를 활용하지 않았을 경우 행사장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디젤발전기를 가동하였을 것이다.
- 디젤발전기만 가동하여 전체 전력 공급 시 518.915L의 경유가 사용되고, 이에 따라 1,360.729kgCO₂-eq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였다.
- 만약, 인디고만 활용하여 전체 전력 공급 시 812.358kWh 사용량에 따른 373.205kgCO₂-eq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 이를 통해 987.524kgCO₂-eq의 감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약 72%의 절감률로 확인된다.

③ 기존 사용하던 화약제품 대신 친환경 낙화놀이로 대체함으로써 기존 대비 87.5%의 흑색화약 절감효과 획득. 향후 축제나 공연에 사용되는 불꽃놀이 중 이산화탄소배출을 개선할 해법 고민의 시발점이 됨

- 친환경 낙화놀이와 LPG 시스템으로 대체하지 않았을 경우 총 56,245g- 약 56kg의 화약을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천연소재 제품을 활용한 결과 49,225g의 화약 절감효과를 가져왔음. 87.5%의 화약 절감효과가 발생하였다.
- 기존 불꽃놀이에는 흑색화약 외 색깔을 만드는 데 다양한 혼합재료가 사용되며 이를 태우면 필연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발생된다. 불꽃의 제품별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양의 측정정보는 흑색화약 및 기타 혼합재료를 태우지 않은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쭉, 소금, 숯 등 천연재료를 기본재료로 사용하는 낙화놀이를 통해 혼합재료를 태우지 않은 것 자체와 그 양에 대해 측정하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판단한다.

6) 실천의 어려움

① 친환경 시스템 도입의 어려움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는 축제의 특성과 가설물을 중심으로 하는 야외축제 구조상 서비스의 속도와 효율적 측면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먹고 마시는 푸드코트의 경우, 수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에서 다회용기를 일일이 세척하고 다회용 수건을 일일이 빨아 테이블을 청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일일이 분리수거를 진행하는 것은 축제만의 친환경 노력으로 극복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분리수거 및 설거지를 위한 많은 현장 인력들이 보강되어야 하나, 예산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며 거친 현장의 3D역할이라 일손을 확보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② 친환경 산업의 대중적 확산 미비

아직 친환경 산업이 대중화되지 않은 관계로 제품의 종류와 수량의 한계가 있다. 다회용기의 경우 맥주잔의 다양성이 부재하고, 피자를 위한 다회용기가 아직 개발되지 않아 전체 메뉴를 다회용기로 제공할 순 없었다.

전기축전차량 역시 아직 수량과 용량이 제한되어 전체 스테이지의 전기를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개발단계의 상태라 축제시장만을 위한 축전시스템 개발은 업체의 부담이

커 다양한 산업군과 그것을 소비할 다양한 시장형성이 뒤따라야 확산될 수 있을거라 판단된다.

③ 환경 근본주의적 관점으로 인한 '그린 워시'적 행위로 치부될 우려

아직 시장 및 산업이 대중화되지 않고 환경에 대한 초기 문제제기 단계라, 모든 시스템을 친환경으로 일시에 바꾸기는 불가하다. 어쩔 수 없이 일회용품이 다소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객관적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일부 전문가 및 일부 관객들의 문제제기가 발생하기도 한다. 친환경이라고 타이틀을 걸고 반환경적 작태를 서슴치 않는다는 비난에 '그린 워시'로 치부될까 아예 시도조차 않을 우려가 있다.

축제 자체의 반환경성(자가차량을 타고 오는 관객들, 수많은 인파에 따라 발생하는 쓰레기 등)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로 축제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일부 사례가 접수 되기도 한다. 축제를 하며 지구를 덜 훼손하는 방법에 대한 축제 측의 시도와 노력이 무의미한 것으로 단순화될 가능성 있다.

7) 개선을 위한 제언

중장기 및 단기 계획 수립과 지속적 고민, 실천의 필요성

많은 인파가 몰려 먹고 마시는 야외 축제의 반환경적 성격, 당연히 사용해온 일회용품과 이를 대체할 친환경제품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축제 자체에 대한 근본적 회의감이 발생하기도 한다. 단시간에 모든 문제를 개선하거나 친환경 시스템으로 바꾸기보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할 수 있는 것부터 개선해나가는 것, 지속적인 고민과 실천이 필요하다.

일회용품, 가공품, 유류 발전기 등 쉽고 편리하고 대중화된 제품 및 작업방식 대신 오랜 시간 사람의 정성으로 제작되는 수공업적 작업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한정된 준비 기간 및 짧은 공간 임차 기간, 예산 및 인력 등 조건의 한계로 더 많은 것을 시도할 수 없었던 것이 아쉽다. 축제 초기 기획부터 이러한 여건과 조건을 고려한 작업방식 고민이 필요하다.

8) 추가적 실천

축제현장을 친환경적 사례 개발과 전파의 장으로 활용

코로나19로 다중밀집형 축제 대신 개발되었던 일상형 축제 모델 중 하나인 ‘걷다보는 마임’의 경우, 보편적 축제공간 대신 시민들의 일상공간인 산책로에서 진행함에 따라 일체의 인쇄물을 제작 배포하지 않았다.(운동복장이라 인쇄물을 받을 수 없음) 특정 무대 없이 잔디밭 위에서 최소한의 전기만 사용하며 진행하였고, 많은 시민들이 친환경 시스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역 환경업체와 함께 축제장에서 먹고 버린 음식물 쓰레기를 비료로 제작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그걸 통해 획득한 농산물을 다시 축제에서 판매하는 로컬 매커니즘이 기획되고, 축제장에 모인 많은 사람들과 기획자에게 공유되는 사례 개발과 전파의 장으로서 축제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방법을 찾고 있다.

서울 프린지페스티벌

<서울프린지페스티벌> 홈페이지 <http://www.seoulfringefestival.net>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seoulfringe/

#폐기물

#물자와 재료

#에코프린지 프로젝트

#씨어터 그린북 워크숍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사례는
서면 인터뷰를 통해 정리하였고,
인터뷰에는 서울프린지페스티벌
백교회 프로듀서가 참여하였다.

사진 ©서울프린지페스티벌

1998년 대학로에서 열린 ‘독립예술제’로 시작된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은 매년 여름, 연극, 무용, 음악,
퍼포먼스, 시각, 영상 등의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축제다. 작품이나 예술가에 대한 심사, 선정이 없는
자유참가의 원칙을 두고 있으며, 모두에게 참여의 기회를
개방하고 있다.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공간을 실험하고
장르와 형식을 넘나드는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 색다른
도전, 자유로운 작품 발표가 가능한 축제다.

2022 프린지 페스티벌은 8월 4일부터 29일까지 PLOT
등 서울 마포·서대문구 일대 민간문화예술공간 10곳에서
열렸다. 2022 프린지에는 예술가 72팀이 참여해 약 300회의



작품이 발표됐다. 기후위기 시대의 축제에 대해 고민하는 ‘인류세에 대처하는 예술가이드’ 워크숍, 아직 끝나지 않은 블랙리스트 사태를 다루는 ‘프린지 블랙리스트를 말하다 2 : 친애하는 자유에게’ 기획전 등이 마련되었다.

1)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툰베리Thunberg의 연설, 멸종반란Extinction Rebellion의 시위

2019년 영국 런던에서 지내고 있을 때였다. 예전부터도 런던에서는 채식, 공공교통 활용 등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식은 있었지만 2019년에 느꼈던 사회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청소년 기후활동가인 툰베리의 시위와 UN 연설이 전 세계인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런던의 중심인 트라팔가 스퀘어에서는 멸종반란XR의 시위(라고 하지만 사뭇 평화롭고 예술적인 방식의)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사람들도 진지하게 토론에 참여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대안을 찾는 모습이 꽤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개인적 차원의 변화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많이 하지 못했다. 분리수거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실제로 재활용되는 자원의 비율은 극히 낮고, 내가 아무리 대중교통을 타고 채식비중을 높인다고 한들 기후위기는 막을 수 없이 거대한 것으로만 생각되었다.

2)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인식과 계기

줄리의 자전거Julie's bicycle, 매튜본Matthew Bourne, 콜드플레이Coldplay로

이후 영국에 체류하는 동안 극장과 예술단체들이 환경을 위해 다양한 실천을 하는 것들을 목격할 수 있었다.

사소하게는 종이류 티켓/홍보물의 사용 축소, 축제에서 로컬·친환경 먹거리의 판매부터 극장의 친환경 건축, 예술단체의 자체 그린 라이더 제작, 콘서트에서의 친환경 에너지 생산 및 사용 등 내가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3) 실천의 시작

에코프린지 프로젝트의 부활

2020년 말, 평소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있던 프린지 사무국의 박상미(샬뮈), 백교회(교), 이은주(은주)는 우리가 만드는 축제가 조금이라도 지구에 덜 해를 끼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모였다. 국내외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던 중 2012년 프린지와 아름다운 가게와의 협업으로 축제에서 발생하는 탄소발자국을 계산하고, 친환경 물품들로 축제 용품을 대체하는 에코프린지 프로젝트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게 되었고, 이 사업의 이름을 되살려 2021년의 프린지가 축제에서 할 수 있는 기후친화적 활동들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활동에 동력을 얻기 위해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사업에 지원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할 기금을 확보했고, 이후 축제의 필수 요소처럼 여겨졌던 부분을 다시 기후친화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등 축제 참여 예술가, 관객, 인디스트와 친환경 축제란 무엇일까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과정들을 설계했다.

공연예술계 연구 모임 ‘오늘부터 []’

에코프린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한 웨비나에서 인연이 닿아 진행하며 인연이 닿아 공연예술계 안에서 각자

기후위기 관련 작업을 하고 있던 기획자 박지선, 송미선, 백교회와 창작자 전강희, 김보람, 이해원 6인이 모여 씨어터 그린북 The Theatre Green Book 번역 및 스테디를 위한 모임을 만들게 되었다. 2021년 11월 모임을 시작했고, 서울문화재단 예술청 모꼬지 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모임의 결과 베타버전의 ‘씨어터 그린북’ 번역본을 공연예술계 동료들에게 배포하게 되었다. 이는 에코프린지 1년차 활동 이후 지속적이고 확장가능한 활동을 고민하던 프린지에게도 기후위기 관련 활동을 지속해나가게 하는 동력이 되었다.

4) 창제작 과정의 실천 사항

가. 에코프린지_1년차_쓰레기

① 리서치

초반 리서치 과정에서는 축제에서 자주 발생하는 쓰레기(종이, 현수막, 배너, 음식물, 매립쓰레기)를 정의, 이 항목의 쓰레기를 줄이거나, 친환경적 재료로 대체할 수 있는 과정을 사무국 스태프들과 함께 연구하였고, 이 과정에서 찾아낸 정보들로 구성된 <친환경 홍보물 제작 가이드>를 축제 참여 아티스트에게 배포하였다.

② 홍보물 제작 방식 개편

프린지 사무국 역시 기존 홍보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데 따르는 위험 부담으로 인해 홍보물 인쇄를 완전히 하지 않을 수는 없었고, 친환경 종이와 인쇄방식으로 프로그램북, 티켓, ID카드 등을 인쇄하는 방식으로 2021년에는 만족해야 했다. 현수막 역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현수막을 제작하는 소재를 일반 현수막보다는 더 튼튼한 소재로 사용하여 축제 기간 중 사후 제작 굿즈로 예약판매하였다.

③ 자원활동가 ‘에코프린지팀’ 운영

인디스트 ‘에코프린지팀’을 모집하여 사전활동으로 기후위기 관련 서적 스테디, 전시 관람 등을, 축제 기간에는 축제 참여 예술가, 관객, 인디스트 간에 기후위기 관련 정보 공유, 예술가 인터뷰 진행, 비건식당·카페 지도 제작, 물물교환 이벤트 등을 진행했다. 인디스트 스스로 기획한 프로그램들은 축제구성원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④ 대중·관객 대상 집담회, 워크숍 진행

이외에도 축제기간 중 관객 및 대중을 대상으로 집담회, 워크숍을 진행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창작자들의 태도와 작업, 축제들의 이야기를 나눈 집담회는 온라인으로 송출하여 큰 관심을 받았고, 기후위기를 일상에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관객, 대중을 대상으로 보다 친밀한 활동들을 워크숍으로 기획하여 직접 참여하는 활동을 통해 기후위기를 감각하는 다양한 예술적 체험들을 마련하고자 했다.

⑤ 예술계 동료들과의 밀도있는 대화, 웨비나

축제 이후에는 예술계 내에서 비슷한 활동을 하는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며 우리의 올 한해 활동을 돌아보기 위해 6번의 웨비나를 진행했다. 소규모로 진행된 세션들이었지만, 서로의 실질적인 실천에서 생긴 고민과 시행착오,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활동을 지지하고 이후를 기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한 시간이었다.

나. 에코프린지_2년차_지속가능한 창제작

씨어터 그린 북 워크숍

2022년 초에는 ‘오늘부터 []’ 동료들과 함께 공연예술계 창작자들과 함께 번역한 씨어터 그린 북을 함께 읽고,

서로의 태도와 실천을 나누는 시간을 계획했다. 베타 버전의 워크숍이었기 때문에 워크숍에 참여하는 창작자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소통 과정이 필요했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프린지 참가 아티스트 중 희망하는 팀들과 함께 워크숍을 진행했다.

팬데믹 이후 기후위기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 증대, 젊은 창작자들이 더 심각하게 감각하는 기후위기, 예술계 내 관련 작업의 노출 등으로 에코프린지 워크숍 참여율은 기대보다 높았다. 워크숍에서는 하루 종일 서로가 감각하는 기후위기, 씨어터 그린북에서 언급하는 공통의 태도, 가치 등에 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개인적으로 워크숍 참여팀들의 작품이 창제작되고 표현되는 방식을 관찰할 수 있었다. 소규모 작품이 많은 프린지 작품들의 특성상 워크숍에서 언급되었던 내용들이 바로 적용될 수 있음이 신기하기도, 흥미롭기도, 감사하기도 했다.

5) 실천의 효과

① 프린지 참가팀의 변화

‘때론 미약한 힘일지라도’는 2022년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참여팀인 ‘보노보 프로젝트’의 차서영 연출이 축제 기록집을 위해 작성한 글의 제목이다. 평소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깊었던 차서영 연출은 기후위기를 주제로 한 공연을 제작해 프린지에 올리기로 하면서 팀원을 모으고 이들과 기후위기 관련 서적을 읽고, 에코프린지 워크숍에 팀원 모두가 참여하여 씨어터 그린북을 함께 읽었다. 이후 팀 내에서

스스로 지킬 친환경 프로덕션 제작동의서를 팀원들과 함께 작성하고, 식사, 이동, 연습 등 프로덕션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발생 활동들을 기록했다.

연출의 강한 의지와 팀원들의 공감과 합의 덕분에 이 팀은 작품 제작기간 동안 매일 탄소발자국을 기록하기 위한 설문조사에 모든 팀원이 참여했고, 텀블러와 손수건, 수저통을 챙겨왔으며, 회식은 채식 지향 메뉴를 골랐다. 공연 기간 배달 음식 주문 0회, 플라스틱 컵 사용이 0회였다. 아주 소소한 변화로 보일지라도 같은 시도를 해본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이 단체는 팀의 실천을 유튜브 블로그로도 공유했는데, 이를 본 주변 사람들이 유난이라며 비웃는 대신 연습실에 놀러올 때 비건 간식이나 텀블러에 직접 우린 차를 들고 왔다는 일화도 기억에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출은 공연이 마무리된 후 큰 우울감에 시달렸다고 한다. 이는 기후위기 관련 작업을 하고 있는 많은 창작자들이 느끼는 무력감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한다. 워낙 우리 앞에 닥친 위기가 크다 보니 이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다만 우리는 프린지라는 축제를 통해 같은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는 여러 작업자들을 만났고, 창작자들이 작품을 만들고 표현하는 방식에서 이를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함께 보았다. 이런 공통의 감각과 경험이 이런 작업을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한다. 나 또한 에코프린지 워크숍과 마이크로포럼에 참여한 아티스트들의 태도와 실천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고 에코프린지 프로젝트를 지속해야겠다고 마음먹는 가장 큰 계기가 되기도 했다.

② 더 많은 동료들과의 협업

프린지가 에코프린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예술계 내 많은 동료들을 만나게 되었다. 우리의 요청으로 만났던 분들도 있고, 프린지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우리의 실천을 공유해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게 되었다. 이 과정들이 모두 기록되거나, 정리될 수는 없겠지만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실천이나, 예술계 내에서 지속가능한 제작 과정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이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더 다양한 시도와 실천이 가능해지리라 기대한다.

6) 실천의 어려움

① 비용

2021년에는 서울시의 재정지원으로 다양한 실험이 가능했으나, 2022년에는 별도의 재정지원 없이 축제를 운영하게 되었고,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에코프린지 활동으로 더 많은 대중을 만나고 실천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축제 예산은 한정된 상황에서 기후위기 관련 예산 사용의 유연성(집기 구입·대여, 가격이 더 비싼 친환경 자재 사용, 기획 인력에 더 많은 비용 집행 등)이 지원금 집행에서 어렵게 된다면 앞으로도 더 적극적인 실천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② 관행

홍보물 제작 등과 관련하여 효율성, 편리함 등의 이유로 생각보다 우리가 관행적으로 해오던 비환경적인 부분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야외 행사에서 늘 사용되는 케이블 타이, 축제를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기 위해 제작되는 현수막, 포스터 등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을 포함한

축제구성원이 서로를 설득하고 동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생각보다 설득이 잘 이뤄지지 않더라도 지치지 않고, 소소한 성취들을 디딤돌 삼아 꾸준히 가는 수밖에 없다.

7) 개선을 위한 제안

① 기후위기 관련 공공 기반시설 마련

씨어터 그린 북의 1권은 예술계에 종사하는 다양한 직군·규모의 사람·조직들이 창제작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지만 2권은 지속가능한 극장에 대해 다루고 있다. 민간영역에서 활동하는 창제작자들이 실천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극장 건물의 건축 및 운영에 대한 부분은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커 민간에서는 시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중장기적으로 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② 기후위기 관련 지원 확대 및 예산 편성 허용

지속가능한 예술 창제작은 창제작 과정에서의 많은 변화를 수반한다. 기획단계부터 프로덕션에 관여하는 이들이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더 긴 시간 인력을 고용해야 하고(인건비), 최소한으로 줄였더라도 인쇄가 필요한 홍보물이 있다면 친환경 소재와 방식으로 인쇄할 수 있도록(홍보비·제작비) 해야 하며, 무대와 축제 현장을 제작하는 데 있어 주변 동료의 물품·집기를 최대한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축제를 준비하는 시간에 대한 기획자의 노동력 인정, 전문 대여 업체가 아니더라도 집기를 빌려주고 제값을 지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8) 추가적 실천

설득과 확장

에코프린지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2년이 되었다. 그동안 예술계 안에서 많은 동료들을 만나고 기후위기에 대해, 기후위기 시대 예술의 창작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었던 기회가 주어져 감사한 마음이지만 나와 프린지가 주로 만났던 이들은 이미 기후위기에 관한 관심이 이미 있고, 어느 정도 실천과 실험을 해본 경험이 있는 이들이었다. 2023년에는 이들을 넘어선, 더 넓은 범위에서 동료들을 만나 설득하고 우리의 활동을 확장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설득과 확장을 주제로 계획을 시작할 참이다.

9) 나누고 싶은 정보

- 2021 에코프린지 프로젝트의 개요 및 활동내용은 축제 기록집과, 서울프린지 네트워크 블로그에 보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 [축제 기록집] <http://fringeessay.seoulfringefestival.net/2021/>
- [블로그] <https://m.blog.naver.com/fringenet>

9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 홈페이지 www.dmzpeacetrain.com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dmzpeacetrain

#폐기물

#이동

#다회용기

#친환경 부스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
사례는 서면 인터뷰를 통해
정리하였고, 인터뷰에는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
김미소 총감독이 참여하였다.
사진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은 음악을 통해 평화를
경험하는 축제로, 6월 둘째주에 강원도 철원군 고석정
일원에서 개최되는 페스티벌이다. 록, 펑크, 힙합, 포크,
일렉트로닉 등 국적, 장르, 성별, 세대를 초월한 다양한
음악들이 소개되며 DMZ의 장소성을 살린 스페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수도권 지역의 2030 세대와 철원
군민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축제로 2019년 12개국
40여팀, 1.5만명이 참여하였다. 2022년 코로나 이후 10월
1~2일 강원도 철원군 고석정 유원지 내 잔디광장 일원과
월정리역에서 3년 만에 개최되었다. 보조금 예산 삭감으로
인해 유료로 전환되었으며, 행사 규모가 축소되어 2022년
총 7개국 25팀의 아티스트 약 6천 명의 관람객이 참여하였다.



1)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기후위기에 대한 미디어와 신SCENE의 언급, 기후위기 관련한 법·제도를 통한 인식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은 미디어를 통해 기후위기를 접했으나 위기의 심각성을 잘 인지하지 못했다. 2019년 그레타툰베리의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 연설과 2019년 가을 높은 기온과 극심한 가뭄으로 6개월 동안 이어진 호주의 사상 최악의 산불로 10억 마리 이상의 동물이 희생되고 코알라가 기능적 멸종위기에 처한 것을 보며 기후위기를 보다 직접적으로 체감하게 되었다.

2020년 1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이 발발하며 공연과 축제가 불가한 상황에서 현 사회가 가진 다양한 환경적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다. 코로나 시기 기후위기, 인류세, 탈인간 중심주의, 넥스트 모빌리티 등의 이슈들이 지속적인 언급되었고, 관련한 작품이나 컨퍼런스들을 눈여겨 보게 되었다.

2030년까지 이행하는 국제적 공동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UN SDGs(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지구 환경문제(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 다양성등)의 목표와 세부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IPCC 2050 탄소중립요구(2018)에 따라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직접적인 정책과 법이 제정되는 것을 확인하며, 동시대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규범이자 문화로 인식하고 있다.

2)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인식과 계기

기후위기 대응 국내·외 선도적 실천 사례를 통한 인식과 탐색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은 실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학습하거나 선도적으로 무언가를 시도하지 않았지만, 코로나 이후에 SDGs, ESG를 먼저 실천하는 축제, 해외 뮤지션의 지속가능한 투어 및 콘서트 사례를 눈여겨 보았다. 축제가 재개 되며, 각자의 방식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실천하는 사례들을 바탕으로 실제 축제에서 감각적이고 즉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다.

콜드 플레이 <뮤직 오브 더 스피어스 투어 Music Of The Spheres Tour>

음악계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한 아티스트는 콜드플레이 Coldplay로 이들은 2019년말 여덟 번째 정규앨범을 발표하면서 앨범에 대한 월드투어를 하지 않고, 향후 1~2년간 투어가 친환경적인 동시에 수익성이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것을 선언하였다. 2021년 10월, 콜드플레이는 “지속가능한 음악투어를 하겠다”며 12개 키워드(이산화탄소배출저감·전기·이동·무대공연·팬·물·쓰레기·음식·상품·선의·자연·투명성)와 함께 항목별 실천 강령을 제시하며 투어를 재개하였다.

이들은 공연에 사용하는 전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해 무대의 바닥과 외부, 중앙홀에 태양광 타일을 설치한 후 충전된 태양 에너지 사용, 콘서트장 곳곳에 설치된 키네틱 플로어에서 팬들이 땀박질을 하면 운동에너지로 전력을 바꿀 수 있는 장치 마련, 지속가능한 항공유 SAF를 사용한 비행기 사용, 팬들이 앱을 다운받아 가장 낮은 탄소배출량으로 콘서트장에 오갈 방법을 제공하며 실천하고 있다. <https://sustainability.coldplay.com/>

트래쉬버스터즈

트래쉬버스터즈는 일회용품 대신 여러번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 식기를 대여하고, 수거 후, 세척하여 다시 대여하는 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기꺼이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는 유쾌하고 감각적인 ‘재사용 문화’를 형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트래쉬버스터즈는 새로운 환경 문화를 위해 우리 사회에 ‘함부로 버리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실제 트래쉬버스터즈의 조직 구성원은 축제 기획자 출신으로, 서비스 초기 직접 주최한 ‘2019 서울인기 페스티벌’에서 해당 서비스를 도입해보았다. 이 서비스를 통해 2018년 35,000명에서 2019년 80로 쓰레기가 감소(3,000명 규모 페스티벌)되었다. 코로나 이후 개최되는 여러 축제에서 적극적으로 이들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2022 서비스 도입 축제: 춘천마임축제, 인천펜타포트록페스티벌, DMZ피스트레인뮤직페스티벌, 슬라슬라페스티벌, 서울숏재즈페스티벌, 조이올팍페스티벌, 울주산악영화제, 에어하우스 등
www.trashbusters.kr

3) 실천의 시작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 2022를 재개하며 실천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은 2022년 3년 만에 축제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다. 전반적으로 코로나 이후 축제 신은 축제의 존재에 대한 고민, 축제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 탐색하는 시간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후위기 대응도 실천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고, 먼저 개최된 국내 축제에서도 이러한 실천들이 진행되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피스트레인의 관객은 독립적이고 대안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관객들이다. 코로나 이후 후원, 협찬을 하는 기관과 기업에서도 ESG 실천을 후원의 미션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2022년 축제는 두 달여의 짧은 준비 기간이었지만, 직관적으로 우선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시도하였다.

4) 창제작 과정의 실천 사항

① 축제장의 쓰레기 줄이기, 전 식음료 부스 다회용기 사용

-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은 축제장 내에서 트래쉬버스터즈의 일회용품 대체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피스트레인 2022 식음료부스 10동과 백스테이지 및 아티스트 라운지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였다.
- 행사 기간 동안, 스태프의 도시락을 지급하는 대신 현장 내에 세팅된 식음료부스 이용 쿠폰을 나눠주고, 식음료부스에서 음식을 제공하였다. 식음료부스에서도 다회용기를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시락으로 발생하는 일회용 쓰레기를 줄이고자 했다.
- 축제 행사장 LED 전광판을 이용하여 쓰레기 없는 축제, 다회용기 사용과 반납에 대한 캠페인과 공지사항을 1일 6회 노출하였다. 행사장 안과 밖에 다회용기 반납 쓰레기통과 일반 쓰레기통을 배치하였고, 쓰레기 관리를 하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였다.

② 친환경 부스, 비건 푸드 부스 시범 운영

- 트래쉬버스터즈가 개발한 서스테이너블 부스를 10동을 시범 운영하였다. 시범 개발된 서스테이너블 부스는 친환경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태양광 시스템을 활용하여 전기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제작되었다. 또한 부스 상단과 좌우가 칠판으로 제작되어 부스명과 메뉴등의 적보를 직접 적어 넣을 수 있게 제작되었다. 부스를 꾸미기 위해 별도로 제작되는 현수막, 배너, 폼보드 등의 설치물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 베지테리안 관객, 스태프, 아티스트가 이용 가능한 비건 부스를 운영하였다. 지역 업체를 찾기는 무리가 있어 서울의 비건 전문 음식점을 직접 컨택해 입점을 권유하였다.

③ 시외·시내 셔틀버스의 운영

- 피스트레인은 축제 개최지가 ‘철원’으로 서울/수도권에서 철원으로 이동이 불가피하다. 피스트레인은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철원으로 오는 유료 셔틀버스인 ‘꽃가마’ 서비스를 운영하였다. 꽃가마는 서울 주요지역(사당, 서울역, 합정)에서 출발하여 철원 행사장으로 이동, 대중교통이 끊긴 시간 행사장에서 수도권 귀가행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 또한 행사 시간 내 철원 시내를 순환하는 시내 셔틀버스를 운영하였다. 꽃가마 서비스가 아닌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철원을 방문하는 수도권 관객과 철원 군민에게 자차 사용을 자제하고, 최대한 시내 셔틀버스를 통해서 이동할 것을 권유하였다.

④ 인쇄물·제작물 최소화

- 피스트레인은 과거에 비해 인쇄물 제작을 최소화하였다. 2022년의 경우, 2019년 제작했던 라인업 엽서, 타임테이블 플라이어, 프로그램북을 제작하지 않았다. 디지털 타임테이블을 제공하고 행사홍보 및 현장에 꼭 필요한 포스터, 가로등 배너, 입장팔찌로 제작을 최소화하였다.
- 협찬사가 요구하는 프로모션용 굿즈 제작을 최소화하였다. 제작 대신 기존에 있는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여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⑤ 인력과 물자 이동의 최소화

- 지역 내 수송 차량 업체를 통해 아티스트 수송에 발생하는 이동 거리를 최소화하였다.
- 인쇄, 현장 공간 제작물 관련 지역 업체와의 거래를 통해 물자의 이동을 최소화하였다.
- 행사에 필요한 단기인력을 현지에서 고용함으로써 인력의 이동과 체류를 최소화하였다.

5) 실천의 효과

총 19,850개 일회용품 쓰레기 감축, 서울·수도권 관객의 30% 유료 셔틀 이용

-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은 축제장 F&B존 입점업체 대상 일회용품 대체 다회용기 서비스 제공하였다. 행사 기간 중 컵 8,550개, 식기(빨) 5,500개, 식기(포크) 5,800개를 대여하였으며 총 19,850개에 상응하는 일회용품 쓰레기를 감축하였다. 반납을 한 개수만큼 버튼을 눌러 제로웨이스트 스코어가 올라가도록 안내하였으며 행사종료 시점 기준 17,291 스코어를 달성하였다.
- 서울/수도권 관객 중 30%가 왕복으로 유료 셔틀버스 꽃가마를 이용하였다.
- 철원 시내 셔틀버스 2일 총 44회 운영, 1회 평균 60% 탑승, 약 1,200명이 시내버스를 이용하였다.
- 인쇄물 9종(2019)에서 2022년 3종(2022)으로 축소 제작하였다.
- 친환경 부스 10동, 비건 푸드 부스 1동 운영하였다.

6) 실천의 어려움

①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력 및 정보력 부족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은 기후위기 대응과 실천에

대한 체감은 높았으나,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적극적인 학습이나 계획을 세우고 대응했다기보다, 선제적으로 한 사례들을 보면서 따라하거나 감에 의해서 진행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축제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할 때 우선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공하는 안내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② 기후위기 대응과 실천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

또한 축제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 예산 편성이 불가피했다. 실제 피스트레인의 다회용기 서비스, 서스테이너블 부스의 사용의 예산은 한국관광공사 강원의 ESG 가치 여행의 일환으로 축제 예산 외 별도 예산 지원으로 가능하였다.

7) 개선을 위한 제언

① 축제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속적인 정보수집과 자원공유

- 친환경 축제 커뮤니티 구축, 해당 축제에서 실천한 사례들을 자발적으로 모으고 정리, 꾸준한 업데이트와 지속적인 공유·확산이 필요
- 해외 축제들의 실천 사례 수집과 리서치
- 지속적인 커뮤니티 운영 체계 마련

②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추가 자원 마련

- ESG 실현 기관·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예산 확보가 필요
- 친환경 축제 커뮤니티에 해당하는 축제들의 효과와 성과 측정
- 기후위기 대응 예산 스폰과 협력 제안
- 친환경 축제 커뮤니티에서 공동 캠페인 진행

8) 추가적 실천

축제 기획자 및 전 스태프 기후위기 대응 내부 워크숍을 통한 과제 도출

- 축제를 만드는 전 사람들의 기후문해력 향상
 - 전 스태프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관심과 인식
 - 선도적 사례에 대한 공유와 의견 나눔
- 친환경 축제를 위한 목표설정과 우선순위 과제 도출하기
 - 창제작 프로세스별, 역할별 우선순위 과제 도출과 실행안 작성 위 과정을 통한 축제 설계와 실행

9) 나누고 싶은 정보

서울국제환경영화제가 제시하는 ‘친환경영화제 가이드라인’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축제 중 가장 선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친환경영화제를 지칭하지만, 공연예술축제에도 적용되는 내용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서울국제환경영화제 <친환경영화제 가이드라인>

마음껏 즐겨도 괜찮을까? <지속가능한 축제를 위한

Check point>

1. 에너지

- 최대한 자연광을 활용하고, 장비와 조명 등을 사용하지 않을 때 전원을 차단합니다.
- 디지털 필름 전달 방식과 디지털 상영관 운영으로 탄소발자국을 줄입니다.
- 축제 참여를 위한 대중교통 이용과 도보방문을 독려합니다.

2. 제작물

- 불필요한 인쇄/제작물을 만들지 않고 전자문서화합니다.
- FSC 인증을 받은 재생지를 사용하며 양면 인쇄를 지향합니다.
- 제작물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활용 빈도와 사용 주기를 면밀히 고려합니다.
- 대장 관리를 통해 절약하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합니다.

3. 폐기물

- 불필요한 구매를 막기 위해 기존 사용하던 물품을 먼저 사용합니다.
- 친환경 재료 선택으로 폐기 시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 눈에 띄는 곳에 분리수거함 비치하여 재활용 비율을 높입니다.
- 굵지는 별도로 제작하지 않고 축제 부산물을 재활용합니다.

4. 권리

- 모든 스태프는 서로에게 정당한 대우를 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합니다.
- 자원활동가 그린티어의 휴게시간을 보장합니다.
- 스태프 식사를 채식이 가능하도록 준비합니다.
- 연령, 성별, 장애 등 여부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듭니다.

5. 교육

- 환경교육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미래를 이끌 그린리더를 양성합니다.
- 전국 어린이·청소년에게 평등한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축제 구성원을 대상으로 환경, 성평등, 문화 다양성 존중 교육을 합니다. <https://sieff.kr/>

10 의정부음악극축제

폐기물

물자와 재료

지속가능 실천선언

제로 웨이스트

의정부음악극축제 사례는 서면 인터뷰를 통해 정리하였고, 인터뷰에는 의정부음악극축제 소흥삼 총감독이 참여하였다.

사진 ©의정부음악극축제

<의정부음악극축제>는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의정부시가 후원하는 우리나라 대표 공연예술축제로, 음악과 극이 만나는 모든 장르를 포함하는 국내 유일 음악극 축제이다. 이미 세계무대에서 검증된 거친 최신경향의 음악극 및 신진예술가들의 신선한 작품,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야외공연 등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음악극을 선보여 왔으며 워크숍, 음악극어워드, 관객과의 대화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공연예술축제로서의 기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2022 의정부음악극축제는 6월 10~18일, 총 9일간 의정부 예술의전당 야외무대 및 의정부 시내 일원에서 개최되었으며 약 6만명이 참여하였다.



1) 기후위기에 대응에 대한 인식과 계기

① 기후위기 대응은 동시대 과제, 오랜 시간 축제를 지속하며 축제의 자원 낭비에 대해 고민

의정부음악극축제는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공연예술축제로서의 예술성과 작품성, 그리고 지역축제로서의 축제성과 대중성 투트랙 전략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투트랙 전략의 핵심은 예술에 대한 대중들의 편견을 희석시키고, 시민접근성을 높이고, 동시에 축제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일반 시민들이 고급예술을 어려워하지 않고,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연예술축제의 목표라 생각한다.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규모 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며,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여야만 하는 축제의 속성상 많은 탄소발생과 다양한 종류의 홍보물, 장치장식물을 제작 등 자원의 낭비가 심각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지구와 환경의 문제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 동시대의 과제인 만큼, 축제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프로그래밍과 운영을 고려하고자 했다.

② 환경에 대한 고민과 소통, 2022 의정부 음악극 축제

음악극 축제는 매년 축제의 핵심주제를 선정하고 있다. 축제가 단순히 공연물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예술성과 어떤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프로그램의 결정체임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2022년은 극장 리모델링으로 인해 야외로 나올 수밖에 없었고, 새로운 시선으로 야외공간들을 바라보고, 시대적인 담론을 담아내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부여하고자 했다.

그래서 지구와 환경문제를 예술로 이야기하고, 소통해보고자 ‘2022 거리로 나온 음악극, <지구를 노래하다>’라는 주제와 카피를 정하게 되었다.

2) 실천의 시작

① 의정부 음악극 축제, 거리로 나온 음악극 <지구를 노래하다> 개최

-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뜨거워지지 않게 노력을 기울이기 위한 우리의 실천으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퍼포먼스를 개막공연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지구와 우리를 지키는 작은 실천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축제의 장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 퍼포먼스그룹 ‘유상통 프로젝트’와 함께 음악극축제 개막 공연 무대 합동 연주를 선보여 환경을 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축제 문화도시 의정부를 가꾸어 나가고자 하였다.
- 시민 참가자 50인을 모집하여 폐품을 활용한 시민 오케스트라를 구성하였다.
- 폐막 공연인 <일루셔너리 모먼트>는 종합미디어퍼포먼스로 일루셔너리스트 이은결 씨가 연출한 작품이다. 정호승 시인의 <고래를 위하여>라는 시에서 착안한 작품으로 우리가 사는 모든 환경과 인간은 순환의 관계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작품은 환경에 대한 주제를 잘 표현하여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 축제 특별기획전시로 ‘다 같이 사는 세상을 위한’이라는 제목의 환경예술전시를 개최하였다. 지구를 소중히 아끼자고 외치는 16명의 환경예술 작가들의 목소리를 다양한 방식의 시각예술로 펼쳤다.

② 음악극 축제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거리극과 ‘Green Park Concert’

- 음악이 주요 창작의 골조로 이루어진 음악 특화 거리예술작품과, 환경을 화두로 한 거리예술 작품 등을 선보이며 한 장르에

간혀있지 않고 다원·동시대 공연예술작품을 열린 공간에서 선보이며 시민과 가까이서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 자연의 소리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어쿠스틱 콘서트, 마임, 마술, 전통음악 등으로 시민들의 일상의 공간에 더 가깝게 찾아가 시민들과 교감하는 프로그램과 시민체험 등의 친환경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3) 창제작 과정의 실천 사항

① 의정부음악극축제 지속가능 실천 선언

- 축제 개최 전, 의정부음악극축제 지속가능 실천 선언문인 <지구를 위해 함께 노래하다 S.I.N.G>을 작성하고, 사무국 및 스태프들과 공유하였다.
- 축제 준비단계서부터 기획, 제작, 운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실천 항목들을 정리하고 체크했다.

의정부음악극축제 지속가능 실천 선언문
<지구를 위해 함께 노래하다 S.I.N.G>

실천 1) 함께 찾아보기 Search

지구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함께 찾아본다

- 의정부음악극축제와 관계된 내외부 구성원들(이해관계자)은 지구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발견하게 되면 언제든지 축제사무국 지속가능위원회에 의견을 주세요.
- 에너지, 폐기물, 식음료, 구매 물품 등 지속가능성 이슈와 관련된 사항이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실천 2) 함께 개선하기 Improve

머리와 마음을 맞대어 작은 것부터 함께 개선해 본다

- 발견한 지속가능성 이슈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하기 어려운 이슈들까지 창조적으로 도전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시고, 우리 모두 함께 도전해 보아요.
- SING 아이디어 공모전: 발견된 지속가능성 이슈들을 창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 공모나 함께 실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캠페인을 제안해주세요.

실천 3) 함께 연결하기 Network

지구환경을 위해 실천하는 개인과 단체들을 함께 연결해 본다

- 지구 위기는 개인이나 한 단체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주체들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동참해야 실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양한 개인과 단체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각자가 가진 자원과 역량을 교류할 수 있도록 함께 연결해 보아요.

실천 4) 함께 지켜가기 Guide

지구환경을 위해 작은 행동들을 제시하고 함께 지켜나간다

- 의정부음악극축제에서는 다양한 공연과 행사에서 발생하는 지속가능성 이슈들을 모니터링해서 향후 동일한 이슈와 관련해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실천항목들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② 환경예술 감독, 지속가능성 감독 위촉

지속가능한 축제를 위해 총감독 외 음악감독, 거리예술감독, 환경예술감독, 지속가능성감독의 4인의 협력감독을 위촉, 분야별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의 시대에 지속가능한 친환경적인 축제모델을 구상하고 과정을 모니터링했다.

③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 축제 사무국은 물론 예술단체, 협력업체, 납품업체 등과 지구를 위해 함께 실천할 10가지 목표를 제안하고 함께 실천하였다.
- 관객들에게도 5가지 환경목표를 제시하고 협력과 실천을 유도하였다.

④ 일회용 제품과 쓰레기 대체, 축제장 내 제로웨이스트 캠페인 진행

- 에너지 장비의 효율성과 불필요한 에너지 차단 방안 등을 마련해 탄소배출을 감소시키고, 필요한 물품 중에 일회용으로 사용되고 버려지는 제품과 쓰레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대체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 축제기간동안 윤리적 소비와 생산을 실천하는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아이쿱생활)와 함께 플라스틱 페트병 사용을 지양하는 ‘No 플라스틱’, ‘제로웨이스트’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⑤ 친환경 인쇄물 제작

- 사탕수수를 재료로 한 친환경 현수막과 친환경종이 리플렛을 제작하였다.
- 축제 싸인물도 예전에 제작한 것을 사용하고 불필요한 장식(홍보물 등)설치물을 자제하는 등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였다.

5) 실천의 효과

① 지속가능성 축제에 대한 자체 매뉴얼 마련, 조직 내 지속가능성 향상

- 의정부음악극축제의 지속가능성 실천 이슈를 도출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기존 축제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의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 조직 내 기후위기 대응 및 축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고취되고 대응력이 향상되었다.

② 축제의 예산 절감

- 축제의 상징조형물이나 타이틀을 드러낼 수 있는 설치물에서 년도 등의 표기를 삭제하여 다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다.
- 홍보물 제작을 최소화하여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막고, 예산을 절감하였다.

③ 축제를 찾은 시민들의 기후문해력 향상

- 축제에서 개최한 시민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관람객으로 참여한 시민들에게 축제를 통하여 기후위기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장을 마련하였다.
- 방문객 설문조사를 통해 축제 주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 여부를 질문한 결과, 그렇다 48.6%, 매우 그렇다 36.9%, 보통이다 12.5%, 그렇지 않다. 2.0%순으로 집계되었다. 5점만점 기준평균 4.20점으로 85.5%가 긍정으로 응답하였다.
- 축제 참여자 설문조사에서도 2022년의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매우 적절하다. 44.9%, 적절하다 35.9%, 보통이다 19.2%순으로 집계되었다.
- 응답자의 80.8%가 환경을 키워드로 하는 2022년의 축제 주제가 행사의 목적과 내용을 잘 나타낸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6) 실천의 어려움

- 지속가능한 축제를 선언하고 나서 걱정이 많았다. 그린워싱처럼 포장에 그치거나 일회적 이벤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제대로 알고 했다기보다, 진정성을 갖고 지속적인 실천을

하겠다는 의지로 시작하였다. 실제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실천하시는 분들에 비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미비하거나 잘못된 방식은 아닐지 염려하기도 했다.

- 축제나 공연을 진행할 때 생산·제작, 유통, 소비의 과정의 전 프로세스에서 유형별로 발생하는 탄소의 양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기록하는 지식이 부족했다.
- 직관적으로 실천한 방법들이 유효한지, 이보다 더 유효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과 노력이 필요하다.

7) 개선을 위한 제언

- 장기적으로 의정부음악극축제의 지속가능한 추진체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의정부문화재단 모든 사업에 내재화 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 외부에서 위촉된 지속가능성 감독의 경우 여러 사정상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역할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은 조직 내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역량들을 개발해서 축제와 행사의 핵심역량으로 가져가야 한다. 그에 따른 인력과 조직에 대한 준비와 지원이 필요하며, 외부전문가와 내부담당자의 협력구조,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지속가능성 이슈를 해결해 나가는 데 필요한 자원과 방법을 전달해주는 다층적 지원구조가 필요하다.
- 축제의 주인공인 시민들이 관람하는 것뿐만 아니라 축제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캠페인, 실천(참여) 프로그램을 추가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축제평거나 지원 시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제도, 정책, 추가 예산지원이 있었으면 한다.

8) 나누고 싶은 정보

제21회 의정부음악극축제 지속가능성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 지속가능성 이슈 탐색하기 : 의정부 음악극축제 지속가능성 이슈 질문지를 바탕으로 축제에서 발생 가능한 부정적인 이슈를 최대한 도출함

지속가능성 이슈	주요내용
참여 촉진 Engag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조직 구성원들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참여기회를 만들었는가?(교육/자료 등) • 의사결정자는 지속가능한 축제운영방식에 대해 지지를 보내고 있는가? • 축제의 이해관계자(시민, 참여업체, 예술가 등)는 축제의 지속가능한 운영방안에 대해 인식/인지하고 있는가? • 축제의 지속가능한 운영 추진목표에 대해 공개되어 있는가?(홈페이지 등)
장소 점검 Ven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행사장은 타지역에서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가능한 곳인가?(도시간 연결성) • 특별히 보호하거나 보존해야 하는 지역인가?(문화재, 동물보호지역 등) • 빛이나 소음 공해로 인해 인접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가? • 사용가능한 식수원(음용수)이 현장에서 공급가능한 곳인가? • 기존의 전기장치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인가?
에너지 공급 Energ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를 사용할 계획이나 방법이 존재하는가? • 에너지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품목들에 대한 별도 관리방안이 있는가? • 사용하는 에너지 품목은 높은 효율등급 제품인가? • 낮시간 동안 불필요한 조명을 차단하는 계획이나 공지가 되어 있는가? • 온실가스를 과다하게 배출하는 장비(디젤발전차 등)는 무엇인가?
이동/수송 Transpo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장은 대중교통으로 접근성이 괜찮은가? • 행사 참가자가 도보나 자전거로 이동시 축제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있는가? • 차량(2인 이하 탑승)을 통해 행사장에 오는 것에 대해 자체 요청을 하는가? • 행사 차량들은 온실가스 저감장치가 되어 있는가? • 교통 혼잡시 대응방안은 마련되어 있는가? • 축제 내에서 사용하는 물품들은 인근 지역에서 배송되는 품목들인가?(로컬)

II 해외 사례

- 1 그리너 리오프닝 툴킷 Greener Reopening Toolkit
- 2 지속가능한 창제작 툴킷
The Sustainable Production Toolkit
- 3 지속가능한 창제작 가이드 sustainable production guide
- 4 씨어터 그린 북 Theatre Green Book

1 그리너 리오프닝 툴킷 Greener Reopening Toolkit

- by 브로드웨이 그린 얼라이언스 Broadway Green Alliance
- 원문보기 www.broadwaygreen.com/greener-reopening-toolkit

#환경보전과 안전

#물자와 재료

#식품

#브로드웨이 그린 얼라이언스

#그린 캡틴

1) '그리너 리오프닝 툴킷'에 대하여

브로드웨이 그린 얼라이언스 Broadway Green Alliance¹

'브로드웨이 그린 얼라이언스(Broadway Green Alliance, 이하 BGA)'는 미국 브로드웨이 공연산업협회 격인 '브로드웨이 리그(Broadway League)'와 미국 '자연자원보호위원회(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의 협업으로 2008년에 설립되었다. BGA는 브로드웨이 공연의 전 조명을 LED 조명으로 바꿔 매년 700톤 이상의 탄소배출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에너지 효율이 높은 세탁기로 의상을 세탁하도록 하게 한다거나 매년 두 차례 타임스퀘어에서 천 재활용 이벤트를 여는 등 많은 연구와 프로그램을 실행해오고 있다.

BGA는 <그리너 리오프닝 툴킷>이라는 친환경 공연을 위한 교육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는데, 툴킷은 '줄이고, 재사용하고, 재개장한다(Reduce, Reuse, Reopen)'는 주제 아래 '환경보전과 안전', '백스테이지와 공연', '식품 및 물 공급' 부분으로 나눠 친환경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린 캡틴 Green Captain

'그린 캡틴' 프로그램은 BGA의 여러 프로그램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 볼만하다. '그린 캡틴'은 공연예술 관계자 중 희망자에게 BGA가 공연예술 관련 친환경적 개선 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들이 자신의 공연 현장에서 이를 실천하게 하는 프로젝트다. 현재 800명 이상의 '그린 캡틴'이 브로드웨이를 포함 지역 극장 및 대학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¹ 김효정, '세계 국립극장의 기후위기 대응'(<월간 국립극장> vol.15, 2022.9)은 '브로드웨이 그린 얼라이언스'를 포함하여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영국 국립극장, 줄리의 자전거 등 세계 국립극장의 기후위기 대응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https://www.ntok.go.kr/kr/Community/Webzine/index>

BGA는 다양한 수준의 가이드와 자료,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근 정리된 툴킷이 바로 <그리너 리오프닝 툴킷 : 환경에 페를 덜 끼치는 백스테이지 운영을 위한 툴킷> Greener Reopening Toolkit : A Toolkit For Greener Backstage Operations이다. 툴킷은 코로나19의 대규모 유행을 지나 다시 공연이 시작되는 시점을 변화를 위한 적기로 보고,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변화를 꾀할 수 있는지를 포괄적인 수준의 가이드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2022.3.18. 업데이트).²

<그리너 리오프닝 툴킷>은 코로나19로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다른 환경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나란히 놓고, 공연예술 현장에서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운영해야 하는지를 포괄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2) ‘그리너 리오프닝 툴킷’의 주요 내용

구성

툴킷은 ‘환경을 고려한 건강과 안전’, ‘백스테이지와 공연 운영’, ‘식음료 운영’의 3개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연 창제작과 관련한 사항은 대부분 두 번째 섹션에 포함되어 있다.

섹션 1 : 환경을 고려한 건강과 안전 ENVIRONMENTAL HEALTH &

SAFETY

- 개인보호장비
- 세정 및 제균용품
- 위생과 개인 소독

섹션 2 : 백스테이지와 공연 운영 BACKSTAGE & RUN OF SHOW

- 무대 매니지먼트
- 컴퍼니 매니지먼트
- 뮤지션과 연주
- 연기자
- 무대구성과 목공
- 의상, 헤어, 분장
- 조명
- 음향
- 소품
- 프로덕션 매니지먼트
- 대기실

섹션 3 : 식음료 운영 OPERATIONS: FOOD & HYDRATION

- 컵과 물병
- 식수
- 커틀러리
- 음식

섹션 1. 환경을 고려한 건강과 안전

① 개인보호장비

- 마스크를 잘 관리하면 얼마나 재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² BGA는 약 54분 분량의 툴킷 안내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http://youtu.be/WJm0AjxkZq8>

▶ 뉴욕타임즈의 관련 기사 링크³

- 포장과 배송을 줄이기 위해 가능하면 대량으로 구매하자.
- 마스크를 버릴 때는 줄을 끊고 버리자. 개인보호장비는 일반쓰레기로 버릴 수 있다. ▶ 테라사이클(TerraCycle)의 재활용 프로그램 참여 제안⁴

② 세정 및 제균용품

-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승인하고, 환경보호청(U.S.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EPA)이 권장한 세정용품 추천

③ 위생과 개인소독

- 페달로 문, 쓰레기통을 열게 하면 위생적이면서 종이타월의 사용도 줄일 수 있다.
- 지속가능한 소재로 만들어진 종이용품을 찾아보자.
- 비접촉 손세정대를 위해, 환경인증을 받은 비누를 사용하자.
- 리필가능한 손세정제 거치대, 리필 가능한 알루미늄 병을 사용하자.
- 더 큰 단위로, 대용량 구매로 포장 폐기물을 줄여보자.

섹션 2. 백스테이지와 공연 운영

① 무대 매니지먼트

- 커뮤니케이션 상황, 각본 등에 종이 문서 없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자.
- 블로킹Blocking, 문서작업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자.
 - ▶ 스크립테이션(Scriptation), 스테이지 라이트(Stage write) 프로그램 소개
- 콜보드call board, 하우스보드house board, 각종 양식 등을 디지털로 바꾸자.

³ 뉴욕타임즈의 '방역마스크는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How long can I keep wearing the same respirator mask?)(2022.1.7.)' 기사는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방역마스크 사용방법과 기한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https://www.nytimes.com/2022/01/27/well/live/reusing-respirator-masks-covid.html>

⁴ 테라사이클(TerraCycle)은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 다국적 재활용 기술기업이다. <https://www.terracycle.com/ko-KR/>

② 의상, 헤어, 분장

- 의류 세탁에는 환경 친화 세탁세제를 사용하자.
- 의상, 헤어, 분장 스태프에게 지급하는 입에 무는 전등bite-lights 대신, USB 충전식 헤드램프나 USB 충전식 목걸이형 전등을 사용하자.
- 낡은 의상, 천 조각, 남은 원단은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기부하자.
- 샴푸, 치약, 화장품 등은 '테라사이클' 같은 전문 재활용 프로그램을 통해 재활용하자.

③ 조명

- LED 조명 기구를 사용하자. 무대 조명뿐 아니라 분장실, 작업등 등도 LED로 교체하자.
- 기술 스태프에게 태블릿을 지급하여 종이 문서의 사용을 줄이자.
- 화장실, 대기실 등 공용 공간에 동작감시센서를 설치하자.
- 케이블타이처럼 쉽게 쓰고 버리는 용품을 다회용품으로 대체하자. 구식이긴 해도 먼 로프나 타이 라인tie-line 사용도 고려할 수 있다.

④ 음향

- 음향 렌탈 패키지에 충전스테이션을 추가하고, 마이크, 헤드셋, 손전등 등에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하자.
 - ▶ 브로드웨이에서 공연한 <위키드>(WICKED) 사례 소개⁵
- 마이크, 헤드셋, 무전기 등을 친환경제품이나 70%의 알코올을 적신 천으로 소독하자.
- 마이크, 헤드셋, 무전기 등을 여러 명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면, 바람막이 교체와 소독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일 수 있다.

⁵ 충전식 배터리 전환에 대한 글 <https://static1.squarespace.com/static/5af08f2ae2ccd1af68cb78bf7/5b61d6c7352f5332750b0e0d/1533138631372/Rechargeable+Batteries+at+WICKED.pdf>

⑤ 소품

- 연습실에서부터 소품을 직접 사용할 필요는 없다.
- 음식 소품에는 유리용기나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자.
- 식기를 닦을 때는 친환경 설거지용 세제를 사용하자.
- 섞을 때 쓰는 빨대, 냅킨 등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비치하지 말자.

⑥ 프로덕션 매니지먼트

- 목재, 종이에 대해서는 국제삼림관리협의회⁶Forest Stewardship Council, FSC⁶나 지속가능한 임업 이니셔티브Sustainable Forestry Initiative, SFI 인증을 확인하자. 지속가능하게 관리되고 있는 숲이나 자원에서 온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
- 개인보호장비의 수량을 정확히 파악해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발주하지 않도록 하자.
- <지속가능한 프로덕션 툴킷>Sustainable Production Toolkit에 제시된 전략을 참고하여 실천하자.

⑦ 대기실

- 컵, 접시, 포크와 나이프 같은 물품을 일회용품으로 비치해 두지 말고, 모든 구성원들에게 다회용품 세트를 지급하자.
- 형편이 된다면, 대기실이나 다른 공용 공간에 식기세척기를 구비하자.
- 대기실 등 공용공간에는 동작감지기를 설치하자.
- 모든 싱크대에 비접촉식 자동 수전을 설치하면, 물도 절약하고 접촉면을 줄이는 데 용이하다.
- 종이 타월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 표백되지 않은 100% 재활용 종이 타월을 사용하자.

⁶ 국제 비영리 기관인 국제삼림관리협의회(FSC)는 한국어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kr.fsc.org/kr-ko

2 지속가능한 창제작 툴킷

The Sustainable Production Toolkit

- by 마이클 반타, 로렌 개스톤, 산드라 골드마크, 에드워드 모리스 & 브로드웨이 그린 얼라이언스
- 원문보기 www.sustainableproductiontoolkit.com

#연결된 위기들

#재고관리

#물건이 아닌 사람

#구체적인 목표

#지속가능성

1) <지속가능한 창제작 툴킷>에 대하여

작성자

미국 바나드 칼리지Barnard College 연극과의 프리덕션 매니저 마이클 반타Michael Banta, 의상 디자이너인 로렌 개스톤Lauren Gaston, 바나드 칼리지 연극과 교수이자 디자이너, 지속가능성 디렉터인 산드라 골드마크Sandra Goldmark, 무대 디자이너인 에드워드 모리스Edward T. Morris가 함께 작성한 100쪽에 가까운 분량의 비교적 상세한 내용을 담은 공개 툴킷으로, ‘브로드웨이 그린 얼라이언스’와의 협업을 통해 작성되었다. 작성자들은 “공연예술 기관·단체의 미션에 지속가능성 활동을 연결지어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책을 제공”하는 것이 툴킷의 작성 목표라고 밝히고 있다.

자료의 활용법

변화하고 성장하는 문서를 표방하고 있다. 자료는 마음대로 읽고, 나눠볼 수 있으나 정확한 인용 절차와 출처 명기가 필요하다. 툴킷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변경하거나 용도에 맞게 손을 볼 경우 이메일을 통한 서면 허가를 요청하고 있다. 툴킷을 활용한 워크숍 프로그램도 직접 진행하고 있다. 툴킷은 사용자들의 피드백과 워크숍 프로그램의 결과 등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사례집에서 다룬 툴킷 버전은 v.14로 2020년 이후 포스트 팬데믹 시점에서의 이슈를 포함하고 있다. 2023년 1월 현재 <지속가능한 창제작 툴킷>은 버전 v.17까지 나와 있다.

지속가능한 창제작 툴킷

코로나19 팬데믹과 인종정의 관점의 백인우월주의, 기후위기 등 3개의 위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

하에 공연예술계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툃킷의 스토리텔링은 환경적 측면 뿐 아니라 인종, 계급 등 사회, 경제적 영역으로까지 연결되어 있다.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공정한 임금’과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고, 장인이나 예술가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툴킷에는 구체적인 사례, 기업과 제품 소개 및 비교, 각종 인증제도 소개 등이 포함되어 있어 현장에서의 활용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창고 등에 보관하는 재고 항목에 가격을 책정하여 관리하고 재사용을 촉진하는 ‘재고평가 및 자재관리 방식’은 관심을 가져볼만한 제안이다. 툃킷은 자재 재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과 비율을 표시함으로써, 새로운 자재를 구입하는 것보다 재활용 자재를 관리, 활용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비용의 측면에서도 더 나올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인간 중심의 지출). 공연예술의 지속가능한 모델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을 지불하거나 더 많은 지역의 아티스트를 고용할 수 있게 한다.

2) <지속가능한 창제작 툃킷>의 주요 내용

구성

툴킷은 지속가능한 창제작 활동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사례 만들기’, 사회적·환경적 책임을 지며 창제작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자는 내용의 ‘책임감 있는 자원 확보’, ‘부문별 사례 및 제안’, 그리고 ‘부록’과 ‘파일럿 프로젝트 소개’로 구성되어 있다.

목차

지속가능한 창제작 활동이 필요한 이유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지며 창제작에 필요한 자원 확보하기

부문별

- 무대구성
- 무대의상
- 소품
- 조명
- 프로젝션
- 음향
- 디자인·프리랜서로 참여하기
- 무대와 컴퍼니 매니지먼트
- 이동
- 측정도구
- 사례연구

부록

파일럿 프로젝트 소개

사례 만들기 : 지속가능한 창제작이 필요한 이유

① 서로 연결된 위기들

- 공연예술계는 코로나19로 인한 혹독한 사회적인 영향과 경제적인 영향을 마주하고 있다. 공연예술인들에게는 전 지구적 팬데믹, 백인 우월주의의 잔재와 함께 ‘기후변화’라는 삶의 기초를 뒤흔들 또 다른 현실이 닥쳐오고 있다.
- 세 위기(팬데믹, 백인우월주의, 기후위기)는 우연히 겹친 것이 아니며, 깊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위기의 합류 앞에서 지금 “하던 대로의 방식”을 다시 검토하고, 새롭게 주어지는 책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② 공연예술계에 지속가능성이 중요한 이유

-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둘러싼 대화와 구체적인 행동을 이끄는 일에 공연예술인이 가진 역량은 매우 중요하다.
- 공연예술인은 스토리텔러이자 창의적인 문제 해결자로, 복잡한 개념과 생각을 쉽고 매력적인 방식으로 드러낼 수 있다.
- 공연예술인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회복탄력성을 구축하며, 당면한 문제에 대응해 행동하도록 관객과 동료들에게 힘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다.

③ 공연예술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 2016~2017년, 바나드 칼리지 연극학과와 고담 360 Gotham 360은 <Some Hero>의 창제작 과정에서 만들어진 탄소배출량을 측정해 이를 월 평균 미국 가정의 배출량과 비교했다. 모든 재료가 '전부 새 것'일 때의 탄소배출량은 12개 가구가 배출하는 양과 같았지만, '모두 중고'일 때는 1.5가구의 탄소배출량에 불과했다.

④ 비전에서 습관으로

- 오랜 관행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새로운 패턴과 루틴을 구축하는 데 아래의 원칙과 워크시트를 활용해보자. 창제작 과정의 내부에 “구조적 알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 내부적 책임성 기르기 : 객원 아티스트 계약시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대치를 설정, 직원 성과평가에 지속가능 목표 포함
- 지속적인 측정과 확인 : 정성적, 정량적 방식으로 진행상황과 영향(임팩트)을 파악할 수 있는 측정방식 강구
- 알리기(공표) : 지속가능성 활동의 목표, 데이터, 성취를 프로그램과 마케팅 자료에 공유
- 활용가능한 워크시트 : 커뮤니티의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정책 템플릿

⑤ 지속가능성 논의의 기본 방향

- 미션 : 기관, 단체의 미션을 서술한 문장(선언문 등)을 검토
- 조정과 연결 : 미션을 인적, 환경적, 재정적 지속가능성 목표와 연결하고 조정
- 지정 : 기관, 단체에서 지속가능성 업무를 수행, 관리할 담당자 지정
- 포함 : 우선순위와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 다양한 목소리(의견)를 포함
- 계획 : 목표 달성을 위한 명확한 계획 수립

⑥ 크게 계획하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

- 크게 계획하기 :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션과 닿아 있고, 주된 탄소배출원을 다루는 전략 수립. 고위 경영진과 함께 작업
-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 : 파일럿 프로그램의 실행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방법. 운영할 수 있는 크기의 1~2개 프로젝트부터 시작하되, 계획 단계에서 파악한 미션에 기반 한 큰 그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함

책임감 있는 자원 확보 :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지며 창제작에 필요한 자원 확보하기

① 자재 선택

- 재활용 자재를 구입해 만들기 : 자재 창고에서 구하기, 중고·재생·폐기물로부터 추려진 자재를 구매하거나 빌리기
- 새로운 자재를 써야할 경우 확인 사항 : 재활용되었고 다시 재활용 할 수 있는가, 독성이 있는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 FSC인증과 같은 외부 인증 확인
- 새 자재, '가장 자주 사용'해야 하는 자재에서 '가장 드물게 사용'해야 하는 자재 순으로 : 독성이 없고 재활용 가능하거나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자재 / 독성이 없지만, 재활용할

수 없는 자재 / 독성이 있지만,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자재 / 독성이 있고 한 번 쓰면 폐기해야 하는 자재

지역 업체, 여성이나 흑인, 원주민, 유색 인종이 운영하는 업체 선택

(지역 업체는 과잉생산할 가능성이 낮음) 부문별 사례 및 제안

무대장치, 의상, 소품, 조명, 프로젝션, 음향, 디자인·프리랜서, 무대와 컴퍼니 매니지먼트, 이동, 측정도구, 사례연구로 구분하여 창제작 과정에서 물리적 요소들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탄소배출의 절감방법과 방향들을 담고 있다. 매우 구체적인 사례와 업체 소개 등으로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려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영향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 또한 예술인의 중요성, 환경·사회·재정적 영향 측정 등과 같이 창제작 과정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직간접적인 요인들을 연결하고 그에 따른 중요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안내와 대책도 수록되어 있다.

툴킷의 양이 상당하고(100쪽), 다루고 있는 영역도 창제작 과정뿐 아니라 이동, 단체 관리 등 공연예술 전반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사례집에서 모든 내용을 소개하기는 힘들다. 구체적인 사례와 제안은 툴킷 원문과 번역본은 참조하되, SPT가 특징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부문별 사례 및 제안을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다.

- 재고관리, 평가, 보관에 대한 강조 : 무대, 의상, 소품 등 재사용 가능한 자재의 재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각 재고 항목에 가격을 책정할 것을 강조하는데, 이를 통해 새로운 자재 대비 재고 활용의 경제적 이익을 확인할 수 있고 공연의 규모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사람에 대한 투자 : 자재의 재사용 등을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재 예산을 노동 예산으로 의식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재고관리에 가격을 책정하고 예산 절약분을 측정하는 것도 이 때문인데, SPT는 ‘물건이 아닌 사람에게’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구체적인 목표의 설정 : 구체적인 목표 설정에서 구체적인 실천이 나올 수 있다. “새로운 자재 사용을 50% 이상 줄이기” 등과 같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지속가능성에 대한 넓은 해석 : 환경적 지속가능성 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연결시키고 있다. 물건이 아닌 사람에게 비용을 지출하자거나, 미래를 위한 교육에 대한 강조, 임금의 공정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고민 등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확장하고 있다.
- 다양한 사례 제시 : 공연예술에서의 실천 사례, 친환경·로컬 기업과 인종정의 관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업과 기관을 소개하는 등 다양한 사례 제시를 통해 현장감을 살리고 있다.

3 지속가능한 창제작 가이드 Sustainable production guide

Julie's Bicycle

CREATIVE · CLIMATE · ACTION

by 줄리의 자전거 Julie's Bicycle

원문보기 juliesbicycle.com/resource/sustainable-production-guide

#환경보전과 안전

#단계별 실행방안

#IG Tools

#환경영향 모니터링

#리더십

1) <지속가능한 창제작 가이드>에 대하여

줄리의 자전거 Julie's Bicycle

<지속가능한 창제작 가이드 Sustainable Production Guide, 이하 SPG>는 '줄리의 자전거'가 잉글랜드문화예술위원회의 의뢰로 2013년 발행한, 창제작 파트별로 구성된 약 50쪽 분량의 체크리스트에 기반 한 안내서를 말한다. SPG는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줄리의 자전거'의 이후 작업(안내서)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포괄하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2011년 5월, '줄리의 자전거'가 영국국립극장과의 협력으로 '지속가능 창제작의 날 Sustainable Production Day'을 열어 영국 공연예술계(특히 연극)의 창제작 관련 전문가를 한 자리에 모은 것이 SPG의 계기가 되었다. 이 자리에 모인 120여 명의 전문가들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조명 기술부터 보다 지속가능한 실행을 이끌어내기 위해 누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논의하였다.

2013년 3월, '줄리의 자전거'는 조명을 포함한 무대기술 전문 회사인 '화이트라잇 White Light Ltd.'과 협력해 <제작현장을 푸르게 Green My Production>라는 두 번째 행사를 개최하였다. 10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고,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해법을 고민하는 관련 공급사의 쇼케이스를 운영하였다. 이후 "미학적 측면에서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영국과 주변국의 문화예술계 전반에 자리 잡아 왔기에, 훌륭한 사례를 기록한 자료이자 점점 더 성장하고 있는 이 공동체에 참여하기 위한 초대"로서 안내서 SPG를 제작했다고 밝히고 있다.

‘줄리의 자전거’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다양한 가이드라인과 인증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프레임들이 이 안내서SPG부터 구체적으로 형식화해 등장한다.

- ① 프리 프리덕션 - 프리덕션 - 포스트 프리덕션의 단계별 구분 도입
- ② 예술감독, 제작자, 조명, 음향과 영상, 무대 디자인, 의상, 출연진 등의 창제작 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행위 주체별 구분 도입
- ③ 가이드북 내 체크리스트에서 세 가지의 수준 구분(Starting Points > Industry Good Practice > Leading Ideas)
- ④ 네 가지 환경 영향 요인 구분(Energy, Materials, Waste, Transport)
- ⑤ 네 가지 기본 원칙(Reduce, Reuse, Repurpose, Recycle)

환경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도구들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2008년도 런던 그린 씨어터 프로그램의 가이드에서 스프레드시트 수준으로 제공했던 탄소배출계산기를 개선해 ‘IG Tools’라는 명칭의 별도 툴로 발전시켰다(현재는 ‘CG Tools’로 다시 변모).

2) <지속가능한 창제작 가이드>의 주요 내용

구성

가이드는 ‘프로덕션 매니지먼트’, ‘조명’, ‘음향과 AV’, ‘세트 디자인, 무대미술과 제작’, ‘의상과 무대 패브릭’, ‘출연진’, ‘커뮤니케이션과 마케팅’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목차

1. 프로덕션 관리

1.1. 아트 디렉터 및 프로듀서

1.2. 감독

1.3. 프로덕션 매니저

- 스포트라이트 - 환경 영향 모니터링
- 스포트라이트 - 순회 공연 프로덕션스포츠라이트 - 에너지
- 부록: 데이터 수집 양식

2. 조명

- 스포트라이트- 조명의 미래

3. 음향과 AV

- 스포트라이트 - 악기

4. 세트 디자인, 무대미술과 제작

5. 의상 팀 및 무대 의상

- 스포트라이트 - 면직물, 무엇이 문제인가?

6. 출연진

- 스포트라이트- 좋은 음식 제공

7. 커뮤니케이션 및 마케팅

-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SPG는 창제작 작업을 중심으로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실행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창제작 작업(부문) 별로 ‘프리 프리덕션, 프리덕션, 포스트 프리덕션’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행 방안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실행 방안의 정도를 각 조직의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수준 - 출발점Starting Points, 우수사례Industry Good Practices, 혁신적 접근Leading Ideas -으로 구분하여 제안하고 있다.

공연제작의 환경적 영향과 SPG의 기본원칙

공연제작의 단계별, 구성원별로 네 가지 환경적 영향(에너지, 물자, 폐기물, 운송)의 측면에서 어떻게 이를 줄일 수 있을 지를 논의하는 방식으로 가이드를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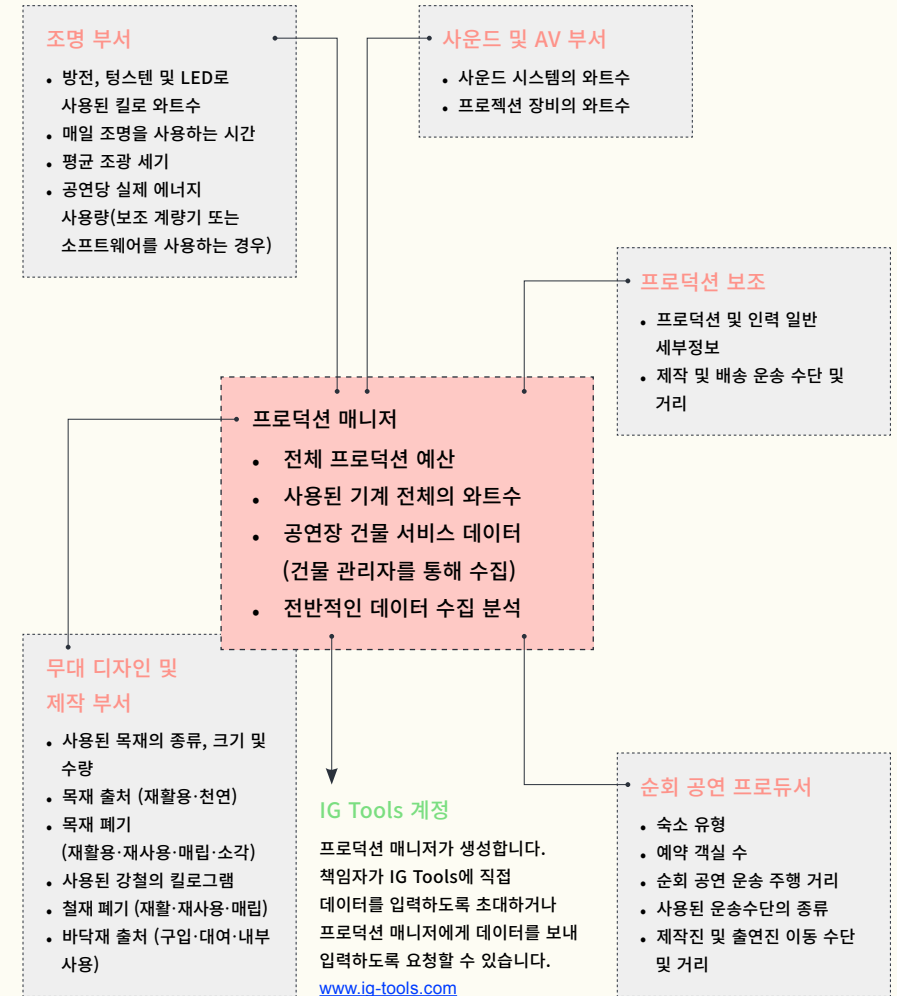
- 에너지 : 무대전기, 자동화 장비, 공연장 및 야외에서의 전력
- 물자 : 무대, 의상, 소품, 특수처리와 코팅, 마케팅 제작물
- 폐기물 : 제작 폐기물, 일반 쓰레기
- 운송 : 제작을 위한 물자 운송, 인력의 이동, 택배, 배달

가이드가 제시하는 체크리스트와 사례 연구를 구성하는 모든 내용은 네 가지 기본원칙이 뒷받침하고 있다.

- 감축Reduce : 재활용할 수 없거나 한정된 재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줄이기
- 재사용Reuse : 재사용할 수 있는 재료와 물건을 찾아서 보관하기
- 용도변경Repurpose : 기본 물자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
- 재활용Recycle : 버려지는 것에서 쓸만한 것을 찾아내어 최대한 재활용

영향	IG Tools 공연장용	IG Tools 순회 공연용	IG Tools 프로덕션용
프로덕션			
인력			
무대 매니저 및 제작진수			●
프로덕션 인건비			●
운송			
프로덕션 운송비			●
트럭 운송 : 차량 유형 / 이동 거리		●	
항공 운송 : 차량 유형 / 이동 거리 / 운송 중량		●	
해상 운송 : 차량 유형 / 이동 거리 / 운송 중량		●	

IG Tools를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는 모든 항목에 대한 포괄적인 명세는 20페이지의 데이터 수집 부록을 참조하세요.



프로덕션 매니지먼트 Production Management

지속가능한 작업방식을 성공적으로 구현하는 창제작 사례의 공통점은 1) 환경이 예술적 성취에 대한 고려나 재정적인 고려와 대등하게 다뤄지고 있고, 2) 창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이 초기부터 지속가능성 목표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출부터 기술진까지 팀 전체의 몰입이 강할수록,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시도와 일하는 방식을 도입하려는 의지도 커지게 된다.

지속가능성을 예산과 제작 조건처럼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산과 자원이 부족할 때, 지속가능성은 가뜰이나 부족한 자원을 축내는 사치 혹은 더 좋은 공연을 하는 데 거추장스러운 제약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우수한 사례의 경우 때로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영역이 생기지만, 제작 규모에 따라 수백만원이나 수천만원의 예산 절감이 나타나는 영역도 있다. 절감된 비용은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인건비로 사용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제작에 참여하는 모두가 지속가능성을 창제작 과정에서 타협할 수 없는 요소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유가 생기면 시도해 볼 수 있는 부수적이거나 추가적인 작업이 아니라, 제작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이럴 때 지속가능성의 비전을 수립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짜는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 리더십 역할을 맡는 이들은 가이드의 전체 내용을 숙지하고 익숙해져야 한다.

환경 영향 모니터링

공연 창제작의 환경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데 활용하기 위한 툴로 'IG Tools'을 제안하고 있다. 'IG Tools'은

연단위로, 분기별로, 월별로 혹은 활동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해 '줄리의 자전거'가 설계한 탄소계산 프로그램이다.⁷

각 부서에서 수집해야 할 항목은 아래와 같다.

부문별 지속가능성 실행 방안

'조명', '음향과 AV', '세트 디자인, 무대미술과 제작', '의상과 무대 패브릭', '출연진', '커뮤니케이션과 마케팅' 등 부문별 체크리스트와 사례, 제안 등의 내용은 SPG 원문 및 번역본의 내용을 참조할 수 있다. 단계별로 그리고 조직의 상황별로 다양한 방식의 실천과제를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는다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조명 : 무대 조명은 에너지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상당한 관심이 필요한 분야다. 조명은 공연장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평균 9%를 차지하지만, 일부 공연장에서는 훨씬 더 높으며 야외 예술과 장소 특정적 공연의 경우 조명만으로도 전력 소비량의 19%를 차지하기도 한다. LED 조명으로 교체, 충전식 배터리 사용, 밝기조절, 사용량 모니터링, 전구 재활용 등

음향과 AV : 기술 발전으로 많은 장비들의 크기, 무게, 소비 전력이 작아져 사용되는 에너지가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전략적으로 접근할 여지가 남아 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사운드 데스크로 전환, 충전식 배터리 사용, 사용량 모니터링 등

⁷ 현재는 'Creative Green Tools(CG Tools)'로 바뀌었다.
<https://juliesbicycle.com/our-work/creative-green/creative-green-tools/>

세트 디자인, 무대미술과 제작 : 환경 영향의 80%는 설계 중에 이루어진 의사 결정에 의해 결정되므로, 설계 프로세스의 처음부터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료인 목재와 금속(강철과 알루미늄)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지, 사용 후 어떻게 폐기할 것인지에 따라 탄소배출량은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환경 정책이 있는 업체와 거래, 재활용 금속이 아니라면 목재를 선택, 재활용 어려운 자재 사용하지 않기, 무독성 수성페인트 사용하기 등

무대 의상과 섬유 : 일반적으로 섬유 산업은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면화 재배와 표백,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와 물, 섬유 노동자들의 윤리적 노동 문제, 엄청난 양의 섬유 폐기물 사이에서 의상과 무대 직물의 특정 출처를 통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의상 제작 이전에 재사용을 극대화, 환경 정책이 있는 업체와 거래, 세탁기 사용 가능한 의상 활용, 의상 재활용을 위해 노력 등

출연진 : 배우, 예술가들의 참여와 행동은 공연의 전반적인 환경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출연진들은 제작 성과에 있어 홍보 역할을 하며, 지속 가능성에 대한 약속을 다른 이해 관계자들에게 알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점심식사 단체구매, 태블릿 활용 등

커뮤니케이션과 마케팅 : 지속가능성에 대한 약속을 전달하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중요하다. 내부적으로 지속가능한 행동에 합의하고, 공연 단체 전체가 지속가능한 목표를 가지고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이점을 가져다주고, 더 넓게 산업을 자극하여 지속가능한 선택을 장려해야 한다. 인쇄물 줄이기, 디지털 파일 크기 제한,

웹사이트에 이동 탄소계산기 링크 및 관객 커뮤니케이션 강조 등

4 씨어터 그린 북

The Theatre Green Book

원문·번역본 보기 <https://theatregreenbook.com/>

#지속가능한 극장

#공통표준

#단계별 실행과제

#탄소계산기

#한글번역본

1) <씨어터 그린 북>에 대하여

씨어터 그린 북 The Theatre Green Book

‘줄리의 자전거’, ‘크리에이티브 카본 스코틀랜드Creative Carbon Scotland’, 런던공연장협의회, 스코틀랜드극장협회, 영국국립극장 등 영국의 예술과 창조산업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관, 단체들이 영국의 엔지니어링 컨설팅 회사인 ‘뷰로 해폴드(Buro Happold)’의 지속가능성 전문가들과 함께 다년 간 작업하고 있는 공연예술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가이드북이다.

지속가능한 창제작Sustainable Productions 과정을 다룬 ‘Book1’이 가장 먼저 발표되었고, 공연 운영 전반Sustainable Operations을 다룬 ‘Book3’가 2021년 하반기에 발표되었다. 공연장 건물Sustainable Buildings을 다룬 ‘Book2’는 현재 베타 형태로 공개되어 있다. ‘Book1’에는 가이드북의 풀 버전과 요약본, 가이드북 이용그룹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등록 절차와 피드백 채널, 가이드북 적용에 유용한 툴킷 모음, 교육자료, 사례연구 모음을 포함한 폭넓은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Book2, 3’은 가이드북과 툴킷만 제공되었으나, 최근 ‘Book2’에 보유 건물을 자체 점검할 수 있는 ‘홈 서베이 툴Home Survey Tool’과 이에 대한 사용자 가이드가 추가되었다.

한국어 번역본 제공

그린북은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영어로 작성되어 있으나 독일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핀란드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그리고 한국어로도 접근이 가능하다. 언어별로 접근할 수 있는 자료는 차이가 있다. 2023년 1월 현재 한국어로는 툴킷을 제외한 ‘Book1’의 번역본이 올라와 있다.

2) <씨어터 그린 북>의 주요 내용

구성

그린북은 요약본, 원칙들, 가이드, 툴킷, 참고문헌과 기타 자료 등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린북은 ‘지속가능한 극장(공연)을 위한 공통 표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창제작 단계별, 부문별 시각화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에 특별히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을 위한 3단계(기초단계, 중급단계, 심화단계) 수준에 맞는 실행과제, 주제별(프로듀서, 연출&디자이너, 프로덕션 매니저, 스태프·제작자, 공급자) 실행과제를 정리, 제시하고 있다.

목차

<p>요약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의적인 도전 프로듀싱 제작 기술적인 지속가능한 제작
<p>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개 주요 원칙들 창의적인 도전 과제 공연 프로듀싱 세트와 무대 목대소품 의상, 헤어, 메이크업 조명, 음향, 영상 공연 운영 미리 준비할 사항 다양한 규모

가이드

- 지속가능성을 위한 3단계
- 기초단계
- 중급단계
- 심화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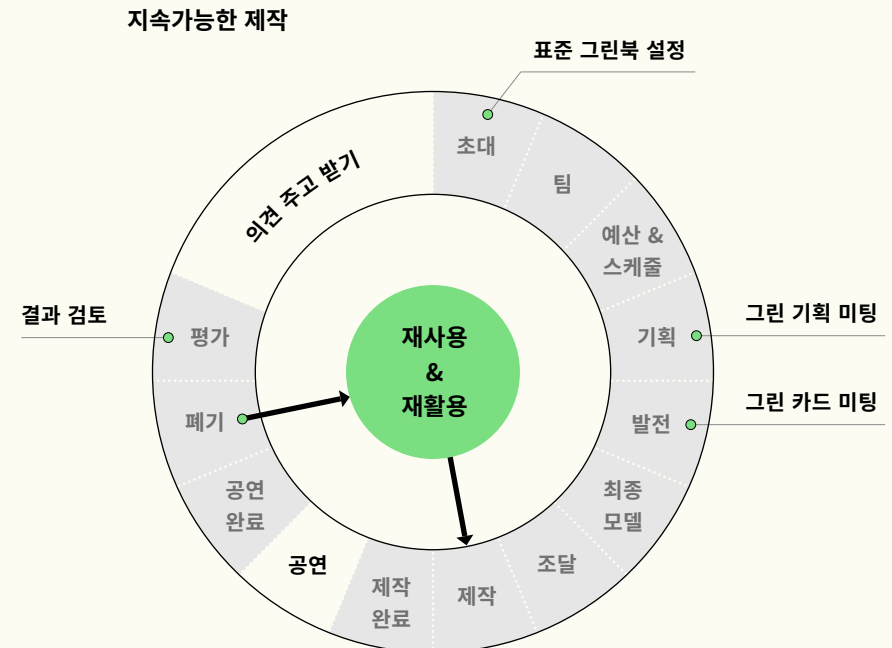
툴킷

- 지속가능한 제작을 위한 툴킷 자료는 아래 온라인 사이트에서 찾아 볼 수 있음 <https://theatregreenbook.com/sustainableproductions-toolkit/>

감사의 인사

참고 문헌 & 기타 자료들

소개 : 지속가능한 공연과 그린북



기후위기는 안전, 평등, 번영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탄소배출을 제한하고 생물다양성의 훼손을 줄여야만 하며, 사람과 공간, 커뮤니티가 지지를 받고 취약한 집단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정의로운 전환을 이룩해야 한다. 극장·공연이 단독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공연은 질문하고, 도전하고, 도발하고, 즐겁게 하고, 놀라움을 줄 수 있다. 공연은 변화의 시기에 직면한 세대들의 뇌리를 사로잡고 있는 생각을 반영할 수 있다. 공연은 지구에 영향을 미친다. 에너지와 자재를 사용하고, 관객이 이동을 해야 하고, 폐기물을 만들고, 유해한 화학 물질을 사용한다. 그린북은 그런 영향을 줄이는 방법을 보여준다. 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관행을 어떻게 바꿀 수 있으며, 공연을 보다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제작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린북은 모든 유형과 규모의 극장·무대 제작에 맞게 설계되었다.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내고, 더 긴밀히 협력하고, 사물이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자원을 소비하지 말고 창의성으로 대체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공연을 위한 기본 원칙이다.

주요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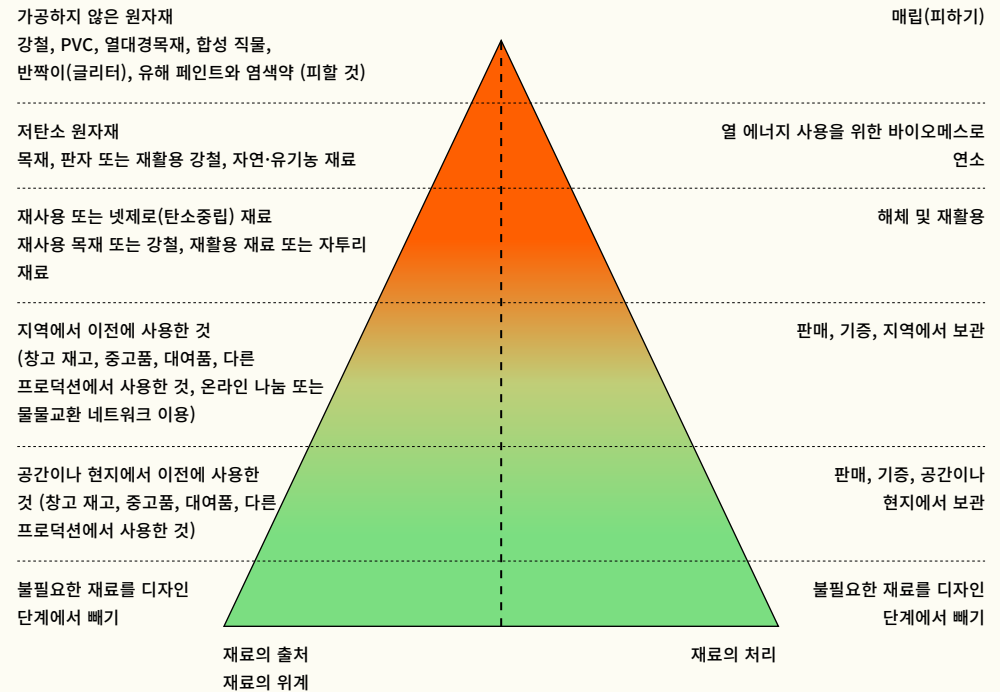
① 지속가능한 작업의 의미

- 지속가능한 창작 : 연출가의 컨셉과 디자이너의 목표로 시작한다.
- 계획과 소통 : 예산과 일정을 목표에 맞출 수 있어야 한다. 팀이 함께 지속가능하게 작업해 나갈 수 있도록 일정에 이러한 미팅을 포함해야 하며, 배움은 공유되어야 한다.
- 새로운 도구와 과정 : 재고 목록과 탄소 계산기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작업장과 제작 과정은 지속가능한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한다.

- 지속가능한 재료 : 이전에 사용했던 도구와 재료를 사용한다. 사용 후에는 재사용, 다른 목적으로 전환, 또는 재활용한다.
- 친환경적인 조달과 수송.이동 : 수송.이동과 배송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우선시한다.

② 재료의 위계(선택의 우선순위)

- 진정 지속가능한 공연이라면 모든 것은 이미 사용되었던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다시 사용되어야 한다.
- 재료의 필요성을 따져 보는 것으로 시작하자. 재사용·재활용 재료의 사용과 이동을 줄이기 위해 지역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하자.
- (새롭게 제작이 필요한 경우) 차선책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다. 재료 선택의 최하위는 탄소가 발생하는 원재료를 사용하는 것이다. 재료 선택의 순서를 생각하자.



- 사용한 자재들의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공연에서 다시 사용하는 것이고 가장 나쁜 방법은 매립지에 버리는 것이다.

③ 탄소 계산기와 자재 재고 목록

- 탄소 계산기는 사람들이 디자인이나 행동, 물건과 관련한 탄소배출을 측정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하지만 이를 사용하려면 교육을 받은 팀과 시간,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린북은 ‘심화 단계’의 프로덕션에서 탄소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 재고 목록(Materials Inventories)은 재료와 물건들이 어디서 오고 어떻게 쉽게 재활용될 수 있는지를 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린북은 모든 프로덕션 단계에서 자재 재고 목록을 사용할 것을 추천한다.

지속가능한 제작 가이드

지속가능성을 위한 3단계로 기초단계, 중급단계, 심화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실천하고자 하는 그린북의 단계를 선택하고, 단계별 세부내용을 따라가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사례집에서 단계별 모든 내용을 소개하기는 힘들다(한국어 번역본을 통해 세부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각 부문별 ‘주요 원칙’을 중심으로 제작 가이드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구분	주요 원칙
공연 프로듀싱	<p>지속가능한 공연 제작을 위해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덕션 착수 단계에서 명확한 지속가능성 목표 세우기 • 지속가능한 작업을 위한 팀, 예산, 일정 구성하기 • 지속가능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모두에게 도구와 방법 제공하기
세트와 무대	<p>최종 목표는 원자재를 쓰지 않고, 운송을 줄이며,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세트를 만드는 데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단계는 디자인을 통해 세트에 필요한 재료의 양을 최소화하는 것 • 다음 단계는 운송을 줄이기 위해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재사용하거나 재활용된 재료를 찾는 것 • 여의치 않다면, 새 재료들은 가능한 지속가능성이 있는 것이어야 함 • 지구에 해를 끼치는 지속불가능한 원자재를 쓰는 것은 최후의 수단
무대 소품	<p>최종 목표는 원자재를 쓰지 않고, 운송을 줄이며,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소품을 제공하는 데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소품과 가구를 재사용하고, 끝난 후에서 재사용할 수 있게 하기 • 새 제품을 구입하는 양을 줄이려면, 디자이너와 소품 관리자에게 더 많은 시간과 유연성이 필요(프로듀서는 이를 위한 시간과 예산을 확보) • 극장에서는 네트워크를 통해 적합한 소품을 찾을 수 있게 도움주기
의상, 가발, 헤어, 메이크업	<p>지속가능한 의상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속가능한 방식의 헤어와 메이크업을 통해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상은 재사용되거나 재활용되어야 함. 공연이 끝난 후에는 보관하거나 중고시장에 팔기 • 재활용되거나 지속가능한 직물을 사용한 의상 제작 • 의상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세탁과 드라이 등은 자연에 좋지 않음. 지속가능한 방식의 해결책 찾기
조명, 음향, 영상	<p>조명, 음향, 영상에서 지속가능함은 장비를 오래 사용하는 것이다. 장비는 잘 관리하고, 버리기보다는 수리해서 쓰도록 한다. 수명이 다한 기기의 경우, 폐기도 신경써야 한다. 재사용, 기증, 용도변경, 재활용 또는 보관될 수 있는지 생각해보라.</p>

III 친환경 정보시스템

- 1 친환경건설자재 정보시스템
- 2 한국공기청정협회 검색시스템

공연예술 창제작 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고 지속가능성을 담는 작업은 문화콘텐츠의 파급력을 생각했을 때 매우 높은 사회적 효능감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무대 소품을 비롯해 극장 건물의 개별 물성이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친환경 소재를 지향한다면, 지속가능성을 주장하는 공연예술계의 실천적 논거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탄소중립과 친환경을 매개로 부문별 건설자재를 인증하고 관련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공공과 민간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플랫폼 두 개를 소개하려고 한다.

1 친환경건설자재 정보시스템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 건설자재 #녹색건설자재 #녹색제품

#환경표지인증 #GR인증 #환경성적표시인증



www.greenproduct.go.kr/gmc/main.do

1) 개요

공공기관인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이다. 2013년부터 친환경 건설자재에 대한 세부정보를 구축하고, 구축된 DB를 <친환경건설자재정보시스템>을 통해 업로드하고 있다. 건설 관련 부처, 공공기관 및 건축사사무소, 건설사 등에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여기서 말하는 ‘친환경 건설자재(녹색건설자재)’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녹색제품 중 건설자재에 해당하는 자재 분류를 의미한다.

녹색건축인증 평가항목별 적용가능한 자재의 성능정보, 인증정보, 시공정보 등이 포함된 자재 및 업체 세부정보를 구축하고 있다.

2) 주요 인증

① 환경표지인증 <https://el.keiti.re.kr:9443/>

환경표지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에 근거해 국가(환경부)가 시행하는 인증제도로, 1992년 4월 첫 출범 이래 제품 전 과정에서의 종합적 환경성뿐 아니라 품질과 성능이 우수한 친환경 제품(서비스 포함)을 선별하여 환경표지를 인증하고 있다. 환경표지제도는 동일 용도의 제품, 서비스 가운데 ‘생산 ⇨ 유통 ⇨ 사용 ⇨ 폐기’의 전 과정 및 각 단계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선별하여, 정해진 형태의 로고(환경표지)와



환경표지 도안

간단한 설명을 표시토록 하는 자발적 인증제도이다.



GR마크

② GR 인증

우수재활용제품(Good Recycled product, 이하 GR) 인증제도는 1997년부터 산업자원의 확보와 국가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정부(지식경제부)가 직접인증제도로 시행하고 있는 인증제도이다. 제품별 품질표준 및 공장심사기준을 제정하여 제품 전 과정에서 종합적 품질관리시스템뿐만 아니라 품질 및 성능, 환경성이 우수한 재활용제품에 대하여 GR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GR 인증제도’를 바른 자원순환의 기본 인증제도로 활용할 예정이다.



환경성적표지 도안 국문형, 영문형

③ 환경성적표시인증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인증제로 일상 생활용품, 가정용 전기기기 등 모든 제품의 탄소배출량 정보를 공개하고, 저탄소 상품의 인증을 통해 저탄소 녹색생산과 녹색소비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시행하고 있다.

환경성적표지는 제품의 생산, 수송, 사용, 폐기 등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CO²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라벨 형태로 제품에 부착한다.

3) 수록업체

2022년 12월 현재 총 93,981건을 인증해 환경표지업체 679개사, 저탄소 자재목록 업체 150개사 등이 수록되어 있다.

2 한국공기청정협회 검색시스템

- # 한국공기청정협회
- #KACA
- #친환경 건축자재
- #HB마크



www.kaca.or.kr

1) 개요

한국제품인정기구 인정 기관인 한국공기청정협회KACA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으로 실내 공기질과 관련된 인증제를 운영해 인증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단체표준인증, 단체품질인증 등 총 13개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각 인증을 획득하거나 만료한 업체 리스트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13개 인증 중 친환경건축자재(HB마크)는 무대구성과 건물설비 등 공연 예술 창제작 과정에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함을 진작시키는 것에 충분히 활용할 만하다.

2) 친환경건축자재(HB마크) 인증의 취지와 운영



친환경건축자재(HB마크) 인증 마크
(왼쪽부터) 최우수 등급, 우수 등급, 양호 등급, 일반 I 등급, 일반 II 등급

「산업표준화법」 제27조 단체표준의 제정에 따라 국내외에서 생산되는 건축자재에 대한 유기화합물(TVOC, HCHO) 방출 강도를 ‘한국공기청정협회’가 제정한 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표준인증 규정에 의해 공인시험기관에서 품질인증시험을 한 후, 시험결과에 따라 제품에 인증등급을 부여하는 단체표준인증(HB마크)이다.

건축물의 내장재로 사용되는 일반자재(바닥재, 벽지, 판넬 등), 페인트, 접착제, 목질판상자재 등에 적용되는 인증으로 국내 건축자재 생산업체 또는 수입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방출강도를 평가하여 인증해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에 대한 자율적인 품질관리를 권장하며, 제품의 품질향상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를 진행하여 최우수, 우수, 양호 등 3단계로 구분해 인증하고 있다.

3) 수록업체

2022년 12월 현재 총 804개 업체가 인증업체로 수록되어 있다.

* 이 안내서는 웹용 기반으로 디자인했습니다. 디지털 탄소발자국을 의식하면서도 시각적 흥미를 놓치지 않기 위해 색상과 레이아웃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자문
파주타이포그래피배곳,
디지털미디어연구소장
이재욱

1. 디지털 탄소발자국

디지털 기기는 와이파이, LTE 같은 네트워크를 사용. 이는 데이터 센터까지 서버로 연결, 가동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됨. 또한 데이터 센터의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려면 서버를 냉각해야 하는데 이때 엄청난 전력이 소모되고 이산화탄소 발생.

2. 디지털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몇 가지 방법

- **단순한 그래픽 디자인과 효율적인 네비게이션** : 디자인이 복잡할수록 더 많은 에너지 소모가 발생하므로 명확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단순하고 찾기 쉽게 디자인.
- **밝기** : 모니터 밝기를 100%에서 70%로 낮추면, 모니터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20% 감소.
- **색상** : 색상은 OLED 디스플레이가 있는 장치의 배터리 수명에 영향을 미침. 검은색이 에너지를 가장 적게 사용하고, 빨간색 < 녹색 < 파란색 순으로 에너지 사용이 높으며, 흰색이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 배경을 완전 흰색이 아니라 미색을 사용 하는 것이 에너지 세이브.
- **사진, 그림** : 사진, 그림의 사용은 페이지 용량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일 요소임. 사용하는 이미지가 많고 이미지 파일이 클수록 전송 과정에 더 많은 데이터와 에너지가 필요. JPEG, PNG, GIF와 같은 래스터 파일 형식 대신, SVG(벡터 형식) 그래픽을 선택한다면, 이미지 크기를 축소하는 데 도움이 됨.
- **스트리밍 대신 다운로드** : 음악과 비디오 스트리밍은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의 상당 부분을 차지
- **개인정보 보호모드 설정하기** :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마다 데이터는 수십 또는 수백 개의 회사로 전송됨. 개인정보 보호모드(또는 시크릿모드)를 사용하면, 대부분의 데이터 전송 및 처리를 차단해 불필요한 트래픽이 발생하지 않게 함.

3. 참고

[대한민국정책브리핑] 디지털 기기 사용이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요?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6769>
[환경부] 스마트폰이 지구의 온도를 높인다! 디지털 탄소발자국
<https://blog.naver.com/mesns/221632424922>
[websitecarbon]웹사이트 탄소 계산기
<https://www.websitecarbon.com/>
[그린더웹] 모니터에서 표현 되었을때 에너지 효율적인 컬러 팔레트
<https://greentheweb.com/energy-efficient-color-palette-ideas/>

문화예술부문의 지속가능 가이드북 II

문화예술부문 기후위기 대응 사례

공연예술 창제작 중심으로

발행인	정병국
발행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제출일	2023. 1. 31.
발행일	2023. 2. 28.
전화	061-900-2100, 2200
팩스	061-900-2362
홈페이지	www.arko.or.kr
연구 수행기관	문화사회연구소
책임연구원	최준영(문화사회연구소 소장)
공동연구원	김도형, 김미소(DMZ 퍼스트레인 뮤직페스티벌 총감독), 정규석(녹색연합 사무처장)
협력연구원	김재상(문화연대 활동가), 신영은(시민자치문화센터 활동가), 이윤서(문화사회연구소 연구원)
편집디자인	신영은

본 연구는 2022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연구용역 사업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연구내용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